

CONTENTS

2025학년도 대구광역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RISE사업**

RISE 사업 소개 _ 4

RISE4-5 「청년친화형 지역사회 문화조성 사업」 소개 _ 6

1차년도 추진 성과(요약) _ 7

1차년도 주요 기관(단체) 협약 체결 현황 _ 9

계명대학교 지역사회 공헌 사업 소개 _ 10

계명대학교 지역사회 공헌 관련 협약 체결 현황 _ 11

2025학년도 지역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추진 실적

- 한눈에 보는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_ 12

-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별 활동 결과 _ 14~57

2025년 대구광역시 패밀리페스타 참가 _ 58





FACE Of KEIMYUNG

산학연 협력으로 지역의 미래를 선도하는 계명대학교 RISE 추진단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계명대학교 RISE 사업

계명대학교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을 통해 대구 지역의 신산업과 연계한 특성화 전략을 추진하며,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혁신 모델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RISE 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 역량과 인프라를 지역 산업과 연결하여 인재 양성, 기술 혁신,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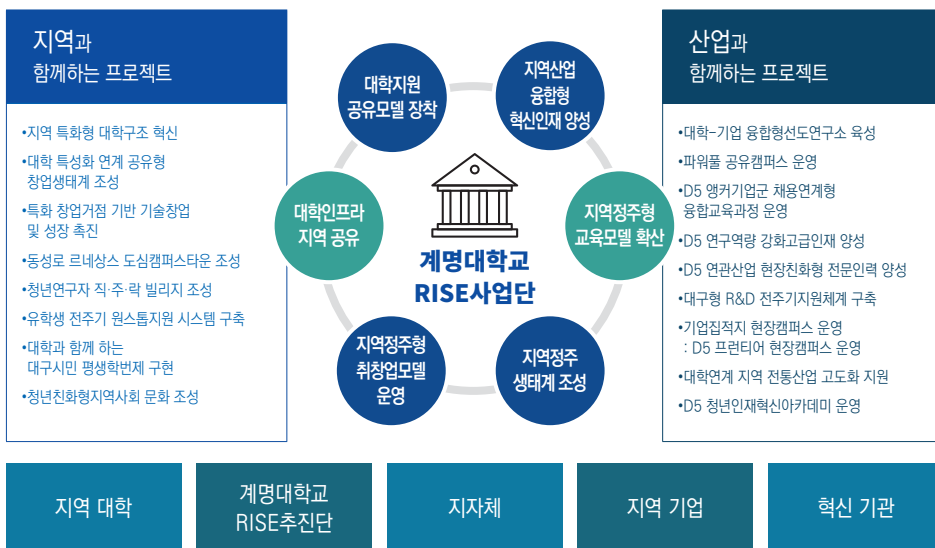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RISE 사업은 자산학인재원, 산학협력단, 창업지원단, 국제처 등 유관 조직이 유기적으로 협력하는 전담체계를 기반으로 운영됩니다. 이를 통해 지역 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기업 전주기 R&D 지원, 창업 촉진, 청년 정주 기반 조성 등 교육·연구·산학협력을 아우르는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협력 EXPO, RISE UP! 커리어 페스티벌 등 주요 행사를 통해 지역 기업과 학생이 직접 소통하고 연결되는 실질적인 협력의 장을 마련해 왔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학생에게는 현장 중심의 진로·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우수 인재 확보와 기술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계명대학교는 캠퍼스 안팎에 현장 중심 교육·연구 공간과 공유 인프라를 조성하여 학생·기업·연구자가 함께 배우고 실험하는 개방형 산학협력 환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성과가 캠퍼스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 산업과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RISE 사업을 통해 청년 인재의 지역 정착, 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혁신을 동시에 실현하며, 지역과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지역혁신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비전 및 목표



RISE 첫 해, 전환기의 의미와 방향

SI캠퍼스 전환·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대학 지속가능성의 핵심
 M시대 속 대학 교육이 나아갈 길…“고유한 인간성 지켜나갈 등불 역할해야”

RISE 사업 첫 해를 돌아보며 계명대학교 신일희 총장은 “성과와 과제를 동시에 확인한 전환기의 해”라고 평가하며, “지역 주도형 체계에 맞춰 대학 내부 의사결정 구조와 행정 시스템을 조정하는 데 시간이 필요했고, 가시적 성과보다는 기반 구축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단기 성과 중심이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구조 전환의 과정으로, 계명대학교 RISE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필수적인 준비 단계였음을 보여줍니다.



이어 신 총장은 “성서캠퍼스와 달성캠퍼스가 각각 산업단지와의 인접한 입지적 강점을 살려 현장 밀착형 교육과 기업 연계 프로젝트, 장기 현장실습과 취·창업 연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는 대학 교육이 산업 현장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계명대학교 RISE 사업의 현장 중심 실행 전략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또한 지역 소멸 문제에 대해 “단순한 인구 감소가 아니라 일자리·주거·문화 교육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복합 위기”라고 진단하며, 계명대학교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인재 정주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유학생 전주기 원스톱 지원, 지역 정주형 취·창업 모델, 정주 생태계 조성”은 대구형 RISE 사업을 통해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핵심 전략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아울러 동성로 르네상스 도심캠퍼스와 기업집적지 현장캠퍼스는 “대학이 교육 공간을 넘어 도시 재생과 상권 활성화의 앵커 기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언급되며, 대학의 역할이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명대학교는 RISE 사업을 통해 단기적인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인재의 지역 정착과 산업 경쟁력 강화, 지역사회 혁신이 연결되는 지속 가능한 구조를 차근차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명대학교는 지역과 함께 미래를 설계하는 지역혁신 중심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 계명대 신일희 총장 인터뷰(매일신문, 2025. 1. 18.) -



제4회 대구콘텐츠포어



Graduate Italia 2025



2025 산학협력 EXPO



2025 패밀리페스타



RISE UP! Career Festival

RISE 사업 4-5과제

청년친화형 지역사회 문화조성 사업

과제 개요

RISE 사업 4-5과제 「청년친화형 지역사회 문화조성」은 지역 청년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의 참여자이자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학의 교육·연구·사회공헌 역량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지역혁신 과제이다. 본 과제는 청년의 주도적 사회 활동을 촉진하고, 대학이 지역사회 내 사회적 가치 창출의 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계명대학교는 본 과제를 통해 지역사회가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를 청년의 시선으로 재해석하고, 학생 주도 실천형 프로젝트를 통해 지속 가능한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계명대학교 청년친화형 지역사회 문화조성 활동 플랫폼



주요 추진 과제 소개

① 지역밀착형 사회문제해결 지원 프로그램

대학생이 팀을 구성하여 지역사회 현안을 주제로 문제 해결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프로그램으로, 달서구·중구·달성군 등 3개 기초지자체와 협력하여 지역 수요 기반 과제를 발굴·운영한다. 청년 문제, 다문화가정, 취약계층,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 등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젝트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②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정책 사각지대에 놓인 느린 학습자를 대상으로 진단·교육·멘토링·부모 및 종사자 교육을 포함한 맞춤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포용적 지역사회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본 과제를 통해 계명대학교는 청년이 지역 문제 해결의 동반자로 성장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가는 RISE 사업의 핵심 가치를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RISE 사업 4-5과제 1차년도 추진 성과(요약)

세부과제1

지역밀착형 사회문제해결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을 통해 총 22개 팀 총 324명의 학생들(지도교수 13명)이 참여하는 학생 주도형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달서구·달성군 중구지역 현안을 바탕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 지역 파트너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되었으며, 참여 팀들은 1월까지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달서구청에서는 2025년 10월 27일 달서 053 미래청년활동가 위촉식을 거행하였습니다. 학생들에게는 지역 기관 전문가들의 멘토링을 실시하였고, 지역 수요 발굴, 과제 기획, 실행과 성과 공유 전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경험하며 문제 해결 역량과 사회적 책임 의식을 함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대학의 교육·연구 역량이 지역사회로 확장되는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협력 기반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달서구청 053 미래청년활동가 위촉식

세부과제2

느린학습자 맞춤형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

본 프로그램을 통해 경계선지능 대상자를 조기 진단·발굴하고 학습 및 사회적 기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신청자 중 총 40명이 경계선지능 대상으로 진단되었으며, 이 중 교육 참여 의지가 확인된 28명을 선발하여 맞춤형 1:1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교육은 대상자 1인당 총 6회기로 운영되었으며, 개인의 특성과 필요에 따라 신경인지 교육과 사회인지 교육을 선택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신경인지 교육은 주의집중, 기억력, 문제해결 등 기초 인지 기능 강화를 중심으로 구성되었고, 사회인지 교육은 감정 인식·조절, 타인이해, 공감, 자기결정 및 도움요청 등 일상생활과 대인관계 적응 능력 향상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 결과 참여자들은 자신의 인지·정서적 특성을 이해하고, 학습 및 사회적 상황에서의 자신감과 적응력이 향상되는 긍정적 변화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느린 학습자 지원의 전문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를 통해 종사자 교육, 학부모 교육 교재를 제작하고, 이해를 돕기 위해 선진지 견학 프로그램을 연계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지역 내 종사자 대상 교육을 통해 느린 학습자의 특성과 인지·정서 지원 방법에 대한 현장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으며, 학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 이해 증진과 가정 내 정서적 지지 역량을 높였습니다.

또한 서울 선진기관 견학을 통해 생애주기별 지원 모델과 대안교육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지역 적용 가능성을 모색하였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 내 느린 학습자 지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실천 중심의 통합 지원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느린 학습자 종사자 교육 및 학부모 교육 교재 개발

서울경제선진지능인평생교육지원센터/
예하예술학교견학(2025.12.)

지역 청년정책 청년포럼 개최

「제8회 대구·경북 청년포럼」을 개최하여 청년이 원하는 도시와 청년친화도시 조성 방안에 대한 심층 논의를 진행하였다. 대구 지역 청년과 청년정책·창업·도시 분야 전문가 등 약 60명이 참여하였으며, 기조연설과 패널토론, 자유 네트워킹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통해 실질적인 공론의 장을 마련하였다.

1부에서는 청년 기업가정신과 창업생태계, 청년친화도시 정책 방향, 대구시 청년정책 현황, AI 기반 거버넌스 등을 주제로 전문가 발제가 이루어져 청년삶과 도시 경쟁력의 연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2부 패널토론에서는 지역 정주, 일자리, 창업, 정책 인지도, 대학의 역할 등 주요 현안에 대해 다양한 시각이 공유되었으며, 네트워킹을 통해 지·산·학·연 협력 기반을 강화하였다.



이번 포럼은 청년 주도의 정책 담론을 확산하고, 대구·경북 청년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실천 과제와 협력 방향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향후 지역 청년정책 및 RISE 연계 사업 기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구청년인재·지역성장협력위원회 개최

RISE 4-5 과제의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사업의 방향성과 고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지역사회혁신, 청년정책, 사회경제적, 지역개발, 교육·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유관기관 관계자를 위원을 초청하여 대구청년인재·지역성장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제1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참석위원 중 김영숙 위원(대구광역시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이 제1대 위원장으로 맡았으며, 1차년도 사업 운영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사회 문제해결 과제의 체계화, 지자체·대학·민간 협력 강화, 청년 참여 확대 방안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느린 학습자 지원, 에너지·돌봄 등 지역 특화 분야의 연계 가능성과 현장 중심 과제 발굴의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또한, 본 사업에서는 청년 인구 유출, 도심 공동화, 취약계층 증가 등 복합적인 지역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전문가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청년 참여 확대와 지역 정주 여건의 실질적인 개선을 위해 지자체·대학·공공기관·민간이 협력해 현장 수요를 공동 발굴하고 실행·평가·환류까지 연계함으로써, 일회성이 아닌 지속 가능한 문제 해결 체계를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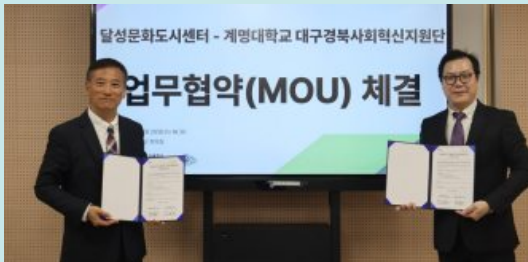
1차년도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 주요 기관(단체) 협약 체결 현황



(주)이음발달지원센터(2025.9.10.)



대구시자립통합지원센터(2025.10.23.)



달성문화도시센터(2025.10.29.)



중구지역 공동 협약¹⁾(2025.11.13.)



작은 거인의 꿈(2025.12.23.)



대구교통공사 2고객센터(2025.12.24.)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2026.1.20.)



대구시청자미디어센터(2026.2.)

각주 1) 중구지역 협약기관 명: 남산정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대구광역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대구광역시 중구 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 중구 청년지원센터, 동산동 악령시 골목길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지역과 세계를 밝히는 계명의 빛”

계명대학교 사회공헌 사업

계명대학교는 2005년부터 계명대학교 교직원의 급여 1%를 기부하여 비영리재단 ‘계명1%사랑나눔기’를 21년째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사회와 세계를 향한 봉사와 나눔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는 계명1%사랑나눔기 사무국 업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대학이 보유한 인적(방점)·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다양한 사회 공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카리타스봉사센터

- 계명1%사랑나눔기 사업 운영 지원
- 지역사회 사랑나눔「카리타스봉사단」운영
- 국내, 국외 봉사활동 기획 및 실행
- 농촌 일손돕기봉사 활동
- 사회적 약자 지원 및 지역공동체 협력 사업 운영
- [대한적십자사] 계명가족 사랑의 헌혈
- 카리타스학생봉사단「ALL-바르미」봉사 및 ESG캠페인

- [대학혁신지원사업] 전공융합혁신사업(EUP)
- [RISE사업] 지역밀착형 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 [RISE사업] 느린학습자 진단 및 교육 지원 프로그램
- 지속가능 사회 발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협력센터)

- [달서구청] 청결지킴이 활동
- [남산복지재단] 장애인 체육대회「마중RUN」행사 지원
- [대구자원봉사센터/달구벌ONE팀] 연계 지역사회 봉사
- [대구광역시자원봉사센터] V-파트너봉사단 연계 활동
- [대구광역시새마을회] 새빛동아리연계 봉사 활동
- [대학혁신지원사업] ESG캠페인 및 교육-그린캠퍼스 구축, 폐기물 온실가스 감축 및 업사이클링등탄소중립 실천
- [한국장학재단]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장학사업 운영
- [한국장학재단] 대학청소년교육지원장학사업운영(학생지원팀)

[비영리법인] 계명1%사랑나눔기

- 사랑의 김장, 쌀, 연료 나눔기
- NGO단체(굿네이버스와 6개단체)를 통한 해외 아동 정기후원
- 자연재해및 불우이웃 돕기 성금
- 국외봉사활동 지원 (공사비 지원 포함)
- 지역사회 사랑나눔「카리타스봉사단」지원
- 지역 복지관 후원 사업 등

전공융합혁신사업 (EUP: Extended University Project)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인적 전문성과 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지역과 협력하고 교류하여 지역과 함께 상생 발전하는 지역사회 공헌 프로젝트



주요 기관과의 지역 사회공헌 관련 협약 체결 현황



1999, 달서구청



2019, 중구청



2019, 달성군청



2016, 대구문화재단



2017, 신용보증기금



2017,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지역대학



2019, 남구청



2019, 수성구청



2019, 칠곡군청



2021, 달성교육지원청, 달성경찰서



2021, 대구달성미래교육지구



2021, 대구평생학습진흥원



2021, 대구오페라하우스



2021, 대구시자치경찰위원회



2021, 새마을운동중앙회



2021, 달서구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2021, 대구시자원봉사센터



2022, 달구벌 ONE팀



2022, 대구녹색환경지원센터



2023,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22~'23, 지역아동센터(6개기관)



2023, 대구정책연구원



2024, 남구지역중합복지관



2025, 달성교육재단



2025, 16개 공공기관(탄소중립실천)

한눈에 보는 2025학년도

번호	프로그램명	팀명	지도 교수	대표학생		협력기관
				학과	이름	
1	[중구]생일 식당	소소파도	박민석	언론영상학과	이은지	동동배 본점 (참여 봉사자 운영 식당), 중구청
2	[중구] '젊은 치매 예방 캠페인'	따뜻한끼	오세연	식품가공학과	김예진	중구청 복지정책과
3	[중구]쪽방 취약계층의 노후건축물 주거환경 진단 활동	쪽방의 GD	이종원	건축학과	문병지	중구청 복지정책과, 대구쪽방상담소, 대구광역시주거복지센터, 지역사회복지관
4	[중구]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파빌리온 프로젝트	쇼미더도면	이종원	건축학과	이승호	중구청 복지정책과, 중구도시재생지원센터, 대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동산동약령시골목길마을 관리사회적기업
5	[중구]중구지역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 진단 활동	도시활성화	이종원	건축학과	장창규	
6	[달서구/중구]지역 실버체육 활성화 및 홍보지원 사업	휴먼핏	조수현	교육학과	김서준	대구 중구 노인 복지관, 성서노인종합복지관
7	[달서구]장수사진	얼소울	최현주	언론영상학과	배민경	대구YWCA 재가노인 돌봄센터
8	[달서구]시니어 생애 재구성 및 세대 소통 프로그램	씨히어	박민석	화학공학과	장연주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 노인 종합복지관 달서구 노인문화대학
9	[달서구]폐 PET 소재의 지역 선순환 활용 프로젝트	스마트솔루 션	황성욱	화학공학과	정수용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10	[달서구]세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달서구!	달서구 환경문제	엄우용	교육학과	이수연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11	[달서구]계명대 역사 청년 주도 노후 공공시설 재생 프로젝트 (우리들의지하철 역사(驛舍)만들기)	캠엘마나	이호택	경영정보학과	이유미	달서구청, 대구교통공사 (고객서비스2팀, 계명대역)
12	[달서구]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따뜻한끼	오세연	식품가공학과	김예진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그램

번호	프로그램명	팀명	지도 교수	대표학생		협력기관
				학과	이름	
13	[달서구]마음-길 찾기 프로젝트: 학교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과 멘토-멘티 진로탐색 프로그램	꿈드림	정대겸	심리학과	정윤아	달서구학교밖지원센터, 달서구청, 진로진학지원센터
14	[달서구]범죄피해자 법정동행 모니터링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누리보듬	정대겸	심리학과 (임상심리전공)	조정화	대구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달서구청
15	[달서구]영양 취약 계층 영양 지원	영양이들	최미경	식품영양학과	홍지민	달서구보건소
16	[달서구]지역아동센터 아동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 먹go! 씻go! 튼튼하go!	보드득밥상 탐험대	정운정	식품영양학과	배아현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달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17	[달서구]함께 만드는 배움: 터전 생태계 프로젝트	BIF	박민석	교육학과	김지은	달서구청 행복나눔과
18	[달성군]대구 청년 문화 'ON' 프로젝트(지역문화·관광&청년문화활동활성화)	도레미	박민석	경제금융학과	신승우	달성군청, 달성문화재단
19	[달성군]김충선 장군 숨결 잇든 가창, 청년 예술 프로젝트 (우륵리지역 자원 활성화를 위한 마을 벽화 조성)	함께하개	박민석	한국어교육과	윤소희	달성군청, 달성문화재단
20	[달성군]달성 법정 문화도시 청년 예술 활동가 육성(달성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갈라콘서트 제작 및 시연)	팀컴퍼니	강연중	연극뮤지컬전공	양세은	달성군청, 달성문화재단
21	[달성군]지역 희망 에너지 충전 프로젝트 (달성군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캠페인)	비사응원단	박민석	심리학과	김유나	달성군청, 달성문화재단, 회원 상인회
22	[달성군]빛나는 문화우체국 커뮤니티 가든 조성	빛나는 마을 정원	정해준	생태조경학과	윤희준	달성문화도시센터, 대구 달성군 공원녹지과

생일 식당

소소파도 팀



활동 내용

「생일 식당」 프로그램은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로 심화되고 있는 어르신들의 고립감과 정서적 결핍 문제에 주목하여, 일상 속에서 지속 가능한 관계 형성과 정서적 교류의 가치를 조명하고자 기획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언론영상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소소파도 팀은 '봉사'를 일회성 선행이 아닌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으로 재해석하고, 이를 다큐멘터리 콘텐츠로 기록·확산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8월 27일부터 12월 말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6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40명의 어르신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팀 내부 회의를 통해 기존 봉사 콘텐츠가 지닌 시혜적·일방적 시선을 점검하고, 어르신과 봉사자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아닌 상호 관계를 형성하는 주체로 담아내는 방향으로 기획 의도를 구체화하였다. 이후 실제 자영업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봉사를 실천하고 있는 촬영 대상자와의 사전 미팅을 통해 촬영 취지와 영상 목적을 공유하며 신뢰 기반의 촬영 환경을 조성하였다.

촬영은 분기별로 진행되는 생일파티와 매달 운영되는 '해피런치타임' 점심 식사 나눔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행사 전 요리 준비 과정, 어르신들의 가게 방문, 식사 전후 자연스러운 대화와 분위기 등을 연출 없이 기록함으로써 일상의 흐름 속에서 형성되는 관계와 정서를 담아내는 데 중점을 두었다. 특히 어르신 인터뷰는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 중심 촬영을 우선하고, 식사 중에는 원거리 줌

촬영을 활용하는 등 윤리적 촬영 원칙을 준수하였다.

사후 단계에서는 촬영본 선별과 반복적인 팀 회의를 통해 영상의 메시지와 방향성을 점검하며 편집을 진행하였다.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촬영과 나레이션 조정 과정을 거쳐 약 8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 1편을 최종 완성하였다. 본 결과물은 생일이라는 특별한 순간과 반복되는 일상의 식사 장면을 함께 구성함으로써, 관계가 축적되는 과정을 자연스럽게 전달하고자 하였다.



주요 성과

「생일 식당」 프로그램은 소규모 팀 운영임에도 불구하고 정성 중심의 사회공헌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6명의 대학생 참여와 40명의 어르신 수혜라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약 8분 분량의 다큐멘터리 영상 1편을 제작하여 프로그램의 전 과정을 기록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봉사를 '특별한 미담'이 아닌 일상 속 관계 형성의 과정으로 재조명함으로써, 사회공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생일 파티와 정기적인 점심 나눔 활동을 함께 구성한 콘텐츠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 관계의 흐름을 효과적

으로 보여주었으며, 이는 초기 기획 목표와 부합하는 성과로 평가된다.

또한 촬영·편집·나레이션 등 다큐멘터리 제작 전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공 실무 역량과 협업 능력이 실질적으로 향상되었다. 제작 과정에서 촬영 대상에 대한 윤리적 고려와 시선 점검을 지속적으로 병행함으로써, 어르신을 수동적인 존재로 소비하지 않는 질적 완성도를 확보한 점 역시 중요한 성과로 볼 수 있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결과보다 과정을 중시하며 진정성 있는 배움의 기회를 제공한 프로젝트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생일 식당 프로그램은 봉사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된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생일과 식사라는 일상적이지만 소중한 순간을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고, 참여 학생들에게는 관계의 힘과 지속성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감하는 경험이 되었다.

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다큐멘터리 제작 기술을 넘어, 촬영 대상에 대한 태도와 시선이 콘텐츠의 메시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임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생일 식당은 거창한 선행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지속될 수 있는 작은 나눔의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서, 일상 기반 지역 연계 사회공헌 프로그램의 의미 있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치매 예방 캠페인



| 따뜻한 끼 틈 |

○ 활동 내용 ○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 젊은 치매 예방 캠페인」은 영양 과잉과 극단적인 다이어트 문화로 인해 청년층의 뇌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보건·영양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단백질을 중심으로 한 균형 잡힌 식생활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기부터 실천 가능한 젊은 치매 예방의 필요성을 시민들에게 전달하고자 기획되었다.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식품가공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학생 등 총 20명이 참여하고, 동성로 일대 시민 약 600명이 직·간접적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메뉴 개발, 식재료 선정, 조리 및 품질관리, 현장 캠페인 운영 등 전 과정을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분담하여 수행하였다.

캠페인은 총 3회에 걸쳐 동성로에서 진행되었다. 매 회차마다 이른 아침부터 실험실에 모여 에그마요·닭가슴살 샌드위치, 견과류, 유산균 음료, 과일 등으로 구성된 간편 도시락을 직접 제작·포장한 후, 현장으로 이동하여 시민들에게 도시락과 젊은 치매 예방 전단지들을 함께 배부하였다. 현장에서는 배너와 현수막을 설치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며 뇌 건강과 올바른 식생활 실천 방법을 안내하였다.

1회차 활동은 전체적인 운영 방식과 시민 반응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이후 회차에서는 도시락 구성과 수량을 보완하여 캠페인의 완성도를 점진적으로 높였다. 반복적인 회차 운영을 통해 학생들은 역할 분담과 협력 구조를 안정화하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며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캠페인은 청년층 뇌 건강과 젊은 치매 예방이라는 다소 낯선 주제를 시민의 일상 속으로 자연스럽게 확산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량적으로는 총 3회 캠페인을 통해 약 600명의 시민에게 도시락과 예방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20명의 학생이 기획·조리·캠페인 운영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극단적인 식이 제한 중심의 다이어트 문화에 대한 문제의식을 환기하고, 단백질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이 뇌 건강에 미치는 중요성을 실천 중심으로 전달할 수 있었다. 단순한 정보 전

달이 아닌 '도시락 나눔'이라는 매개를 활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메시지를 보다 친근하게 받아들이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회차가 거듭될수록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증가하였으며, 캠페인에 참여한 학생들은 직접적인 소통 경험을 통해 책임감과 상황 대응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또한 전공 지식을 실제 사회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식품·영양 분야 전공자의 사회적 역할과 공공적 가치를 체감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 소감문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캠페인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도시락을 준비하고 시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회차가 반복될수록 팀원 간 협력과 운영의 완성도가 높아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었다.

특히 시민들이 도시락을 받으며 젊은 치매 예방과 뇌 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모습을 통해, 본 캠페인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음을 실감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책임감과 팀워크의 중요성을 배우는 동시에, 앞으로도 전공을 활용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2025년 RISE 사업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주관·주최: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계명대학교 식품안전연구소

젊은치매예방 캠페인

경제의 급성장과 고동수단의 발달 및 가공식품 소비 증가는 영양 과잉을 불러와 심뇌혈관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가 초래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다이어트 열풍으로 고기를 멀리하고 샐러드·애들구스·산식 위주의 먹는 것을 제한하는 식단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주로 인지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청년기에 고기요리를 멀리하는 심각한 다이어트는 뇌세포를 구성하는 데 필요한 영양소의 결핍을 초래하여 40대~60대에 젊은 치매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라의 건강을 위해서 청년들이 건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음식	운동
<추천 음식> 1. 동물성 단백질 : 닭고기 등 2. 오메가3 : 등푸른 생선 3. 레시틴(인지질) : 달걀, 두부 4. 비타민 B6, B9, B12 및 물 B6 : 등푸른 생선, 닭고기 B9 : 녹황색 채소, 검은 콩류 B12 : 어패류 5. 유산균 음료 및 견과류	1. 유산균 운동 ① 걷기 : 뇌세포간 연결 강화 ② 6회/1주일, 하루 45분
<피해야 할 음식> 1. 패스트푸드 2. 튀김음식	수면 1. 권장 수면 시간 : 7~8시간 2. 수면 환경 ① 어둡게 ② 촉대폰 사용 자제

어려운 나의 독자서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시편 23:1)

쪽방 취약계층 노후건축물 주거환경 진단 및 개선 리빙랩

| 쪽방의 GD 팀 |



○ 활동 내용 ○

「쪽방 취약계층 노후건축물 주거환경 진단 및 개선 리빙랩」은 대구 중구 쪽방촌에 거주하는 주거 취약계층의 열악한 생활 환경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주민 참여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실행하기 위해 기획된 건축 전공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일방적인 지원이 아닌, 학생-주민-지역사회가 함께 문제를 정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부터 2026년 1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건축학과 및 건축공학과 학생 12명이 참여하고 쪽방촌 주민 12명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센서개발팀, 건축조사팀, 데이터분석팀, 봉사활동팀의 4개 팀으로 구성되어, 기획·조사·분석·개선 활동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쪽방촌 현장 답사와 지역 복지사·행정 담당자 면담을 통해 주거 실태를 파악하고, IoT 환경 센서(온도·습도·공기질·조도·소음) 프로토타입 설계를 준비하였다. 이후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세대별 방문을 통해 전기 안전, 단열 상태, 채광·환기, 공용 공간 위생, 소음 및 조도 등 총 6개 영역에 대한 주거환경 실측과 주민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Python 기반 분석과 시각화를 통해 정량적으로 정리되었으며, CAD를 활용한 평면도 작성과 단열 취약 부위 문서화를 통해 개선 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단열재 및 문풍지 설치, 간단한 보수작업, 정기 방문을 통한 정서적 지원 등 주민 체감형 개선 활동을 수행하며 프로젝트를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젝트는 리빙랩 기반 지역문제 해결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며,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쪽방촌 12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진단을 실시하고, IoT 센서를 활용한 장기간 환경 데이터 수집과 분석을 완료하였다. 또한 CAD 도면과 개선 제안 보고서를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주거환경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주민 참여형 조사와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인 주거 니즈를 파악하고, 단순 진단에 그치지 않고 즉각적인 개선 활동으로 연결되었다는 점에서 높은 현장 만족도를 확보하였다.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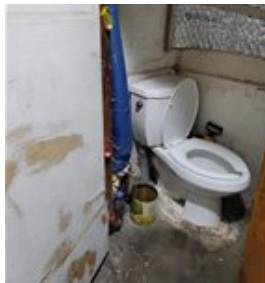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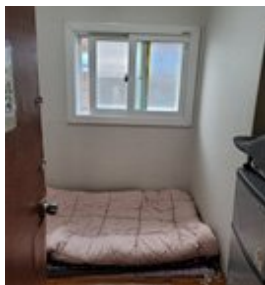
민들은 단열 개선과 생활 환경 정비를 통해 체감 가능한 변화를 경험하였으며, 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관계 형성을 통해 신뢰를 구축하였다.

학생 참여자들은 IoT 센서 제작, 환경 데이터 분석, CAD 설계, 현장 조사 및 봉사활동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전공 실무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기술과 휴머니즘이 조화를 이룬 사회공헌 사례로서, 건축 전공 교육과 사회적 책임을 효과적으로 결합한 우수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쪽방의 GD 팀의 활동은 건축학 전공 지식이 교실을 넘어, 실제 사람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을 체감하게 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현장에서 마주한 열악한 주거 환경은 참여 학생들에게 건축가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깊이 인식하게 했으며, 문제를 외면하지 않고 해결 과정에 참여하는 태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다.

특히 IoT 기술을 활용한 과학적 진단과 주민과의 소통, 그리고 직접적인 개선 활동이 결합된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속 가능한 주거환경 개선 모델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전문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파빌리온 프로젝트



쇼미더도면 파빌리온 팀

활동 내용

「지역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형 파빌리온 프로젝트」는 대구광역시 중구 원도심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의 유희·저활용 문제를 시민 참여 기반의 건축 설계를 통해 해결하고자 기획된 도시재생·건축 설계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쇼미더도면 파빌리온 팀은 건축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공급자 중심 개발에서 벗어나 주민의 실제 요구를 설계에 반영하는 리빙랩(Living Lab) 방식을 핵심 방법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23일부터 12월 23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지도교수 1명과 학생 11명 등 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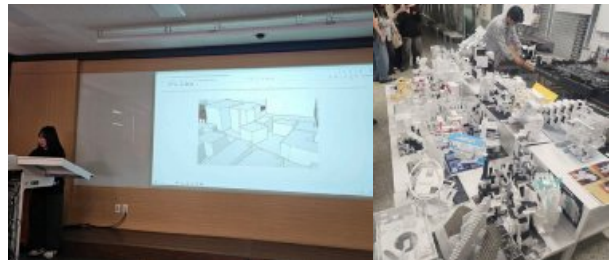
12명이 참여하였다. 수혜자는 대구 중구 지역 주민과 유관 기관 관계자로, 프로젝트 전반에 걸쳐 주민 인터뷰와 전시·공유 과정을 통해 간접적 참여가 이루어졌다.

활동은 총 3단계로 체계적으로 운영되었다.

1단계(현장 기반 실태 조사 및 문제 진단)에서는 중구 동산동 일대를 중심으로 현장 답사, 도시 동선 분석, 공간 실측, 시간대별 이용 행태 관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지역 주민 10인 이상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여 생활 속 불편 사항과 공간에 대한 요구를 수집하였으며, 국내외 파빌리온 사례 분석을 통해 설계 방향의 기초를 마련하였다.



1단계 현장방문



2단계 3D모델링, 모형제작 발표 및 크리틱



3단계 전시 발표회 및 결과 공유회

2단계(사용자 참여형 설계 개발)에서는 주민 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사용자 중심의 설계 콘셉트를 설정하고, 3D 모델링과 시뮬레이션, 1:100 및 1:150 스케일 스터디 모형 제작을 진행하였다. 중간 발표회를 통해 지도교수와 지역 관계자로부터 설계의 실현 가능성과 구조적 적정성에 대한 크리틱을 받으며 설계안을 고도화하였다.

3단계(실무적 솔루션 도출 및 성과 공유)에서는 1:50, 1:100, 1:150 스케일의 정밀 최종 모형과 A1 사이즈 건축 패널을 제작하고, 동산에 이음센터에서 전시를 개최하였다. 전시 현장에서는 주민들이 직접 작품을 관람하고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 참여형 공유 과정이 이루어졌으며, 중구청 도시계획과 등 유관 기관과의 결과 공유회를 통해 실현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젝트는 건축 설계를 매개로 지역 문제를 탐색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 교육·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사례로 평가된다. 정량적으로는 총 11점의 파빌리온 설계 작품과 모형, 전시 패널을 완성하여 공개 전시하였으며, 주민 인터뷰·현장 조사·전시 참여를 통해 다수의 지역 주민이 간접 수혜자로 참여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가상의 시나리오가 아닌 실제 현장 데이터와 주민 의견을 기반으로 설계를 진행함으로써, 결과물의 현실성과 실현 가능성을 크게 높였다. 단순히 조형적으로 완성도 높은 구조물을 제안

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공간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역할과 전달해야 할 메시지를 함께 고민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참여 학생들은 현장 실측, 데이터 분석, 주민 소통, 설계 도면 작성, 모형 제작, 전시 기획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실무 중심 건축 프로세스를 체득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젝트는 주민 수요를 설계에 반영하려는 태도와 결과물의 완성도가 높게 평가되었으며, 대학의 전문성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모범적 사례로 인정되었다.

활동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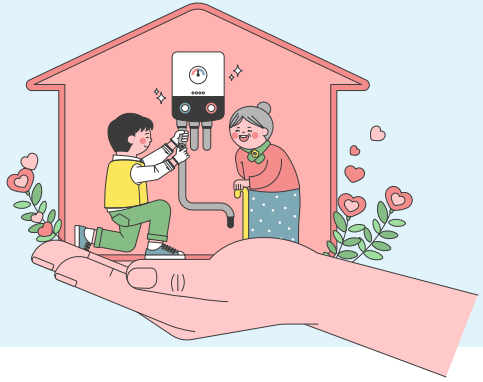
쇼미더도면 파빌리온 팀의 활동은 건축이 단순히 '건물을 짓는 기술'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소통하며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적 도구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한 경험이었다. 현장을 직접 견고 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교실에서 배운 이론과 실제 도시가 지닌 간극을 실감할 수 있었다.

설계 과정에서 반복된 크리틱과 수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 결과물의 깊이와 설득력이 강화되었음을 체감하였다. 특히 전시를 통해 주민과 직접 소통하며 의견을 듣는 경험은 건축가의 역할과 책임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향후에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건축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중구지역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 진단 활동

도시활성화 팀



활동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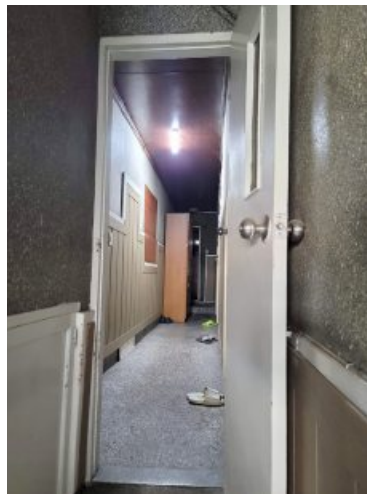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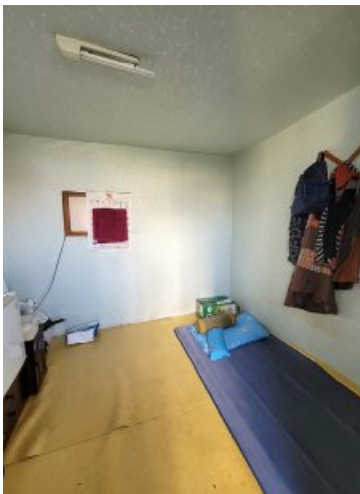
「중구지역 에너지 소외계층 대상 주거환경 진단 활동」은 대구 중구 지역의 쪽방촌 및 노후 주거지에 거주하는 에너지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주거환경을 과학적으로 진단하고 데이터 기반 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기획된 도시재생·에너지 복지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도시활성화 팀은 건축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전공 전문성과 첨단 ICT 기술을 결합한 리빙랩(Living Lab) 방식으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진행되는 장기 프로젝트로, 1차 연도에는 총 8명의 건축학과 학생과 지도교수 1명이 참여하였으며, 중구 지역 에너지 취약 가구 8세대가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학생들은 센서 개발, 현장 조사, 데이터 분석, 행정 협력 등 역할을 세

분화하여 팀 단위로 활동을 추진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중구 쪽방촌을 중심으로 현장 답사와 주민 면담을 실시하여 주거 실태와 에너지 취약 요인을 파악하였다. 이후 아두이노·라즈베리파이 기반의 DIY IoT 환경 센서를 학생 주도로 설계·제작하여, 온도·습도·미세먼지(PM2.5/PM10)·CO₂·조도·소음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다기능 모듈을 구현하였다. 센서는 건축학과 보유 3D 프린터를 활용해 맞춤형 외함을 제작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을 높였다.

현장 조사 단계에서는 레이저 측정기를 활용한 실내 공간 실측, 채광·환기·소음·안전 설비 점검, 전기 설비 및 노후 배선 상태 확인 등을 병행하였다. 수집된 환경 데이터



와 실측 결과는 Python 기반 분석을 통해 시각화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저비용·고효율 주거환경 개선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조사 과정 전반에서 주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고, 디지털 기기 활용에 대한 안내도 함께 진행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에너지 소외계층 주거 문제에 대해 과학적 진단-분석-개선 제안의 전 과정을 구현한 리빙랩 사례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에너지 취약 가구 8세대를 대상으로 주거환경 정밀 진단을 실시하고, DIY 방식의 다기능 IoT 환경 센서 모듈 100세트를 제작·테스트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존의 감각적·경험적 판단에 의존하던 주거환경 점검을 데이터 기반으로 전환함으로써, 에너지 소외계층 주거 문제에 대한 객관적 이해와 정책적 활용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수집된 분석 자료는 중구청 등 유관 부서에 전달할 수 있는 기

초 데이터로 정리되어, 향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근거 자료로 활용될 기반을 마련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IoT 센서 제작, 레이저 실측, 환경 데이터 분석, CAD 기반 공간 분석, 주민 소통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며 전공 실무 역량과 문제 해결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활동은 건축학적 전문성과 디지털 전환 역량을 동시에 함양한 우수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단순 봉사를 넘어 지역사회 난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프로젝트로 인정받았다.

활동 소감문

도시활성화 팀의 활동은 건축학 전공 지식이 사람들의 삶과 직접 연결될 수 있음을 현장에서 체감하게 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열악한 주거 환경을 마주하며, 단순한 설계나 이론을 넘어 사회적 약자를 위한 건축의 역할과 책임을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IoT 센서를 직접 제작하고 데이터를 분석해 주민에게 설명하는 과정은 기술이 사람을 향할 때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향후에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건축가·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확립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도시재생과 에너지 복지 분야에서 대학이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을 잘 보여준 사회공헌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 실버체육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사업



휴먼핏 팀

○ 활동 내용 ○

「지역 실버체육 활성화 및 홍보 지원 사업」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사회에서 노년층의 신체 활동 참여를 저해하는 정보 접근성 부족 문제에 주목하여, 어르신들이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실버체육 정보 제공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휴먼핏 팀은 교육학과 신입생으로 구성되어, 현장 조사와 자료 제작을 통해 고령자 체육 참여를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6일부터 2026년 1월 16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교육학과 학생 3명과 지도교수 1명이 참여하였다. 수혜자는 달서구를 중심으로 한 지역 어르신 약 550명으로,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달서구노인종합복지관, 성서종합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이 운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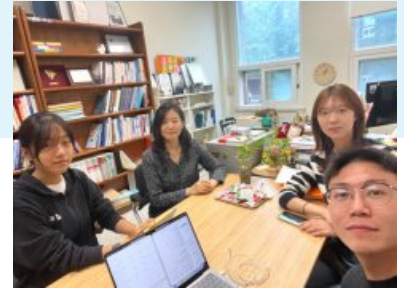
활동 초기에는 실버체육 참여 실태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해 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현장 방문 및 그룹 인터뷰를 실

시하였다. 실제 복지관 이용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평소 체육 활동 경험, 참여 동기, 불편 사항, 정보 접근 경로 등을 조사하여, 어르신들이 체육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된 원인이 '정보 부족'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젊은 세대의 인식과 관점을 파악하기 위해 SNS 기반 온라인 설문조사를 병행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역 내 실버체육 시설 위치, 운영 프로그램, 연락처, 홈페이지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실버체육 로드맵 리플렛을 기획·제작하였다. 특히 고령자의 시력 저하를 고려해 큰 글씨와 단순한 구조를 적용하고, 공간 위치가 직관적으로 보이도록 약도 중심 디자인을 채택하였다. 또한 종이 리플렛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QR코드를 삽입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지역 체육시설 종합 웹페이지를 함께 구축하였다.

완성된 리플렛은 총 2회에 걸쳐 복지관과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배부되었으며, 배부 과정에서 QR코드 사용법과 리플렛의 목적을 직접 설명하며 어르신들과 소통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실버체육 정보 접근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중심으로 의미 있는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교육학과 학생 3명이 참여하여 지역 어르신 약 550명을 대상으로 실버체육 정보 제공 활동을 수행하였으며, 약 300부 이상의 리플렛을 현장에서 배부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존에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던 실버체육 정보를 로드맵 형태로 시각화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체육 시설과 프로그램을 보다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현장 인터뷰와 리플렛 배부 과정에서 수집한 의견은 지역 노인 체육 수요와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성이 확인되었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한 웹페이지 연계는 종이 매체의 한계를 보완하며, 향후 정보 추가·갱신이 가능한 지속적 홍보 구조를 마련한 점에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참여 학생들은 조사 설계, 인터뷰 진행, 자료 분석, 디자인 업체 협업, 현장 홍보까지 전 과정을 경험하며 공공교육 및 지역사회 연계 사업에 대한 실무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활동은 신입생이 주도적으로 기획·실행한 점에서 교육적 가치가 높으며, 지역사회 현실과 공공기관 협업을 경험한 의미 있는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휴먼핏 팀의 활동은 교실에서 배운 교육학적 관점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확장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한 경험이었다. 어르신들과 직접 소통하며 체육 활동 참여의 어려움을 듣는 과정에서, 정보 제공 방식 하나가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

특히 리플렛 디자인 과정에서 고령자의 시력과 이해 수준을 고려해 반복적으로 수정·보완한 경험은 '대상자를 중심에 두는 교육'의 중요성을 실감하게 했다. 현장 배부 과정에서 어르신들이 관심을 보이며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작은 노력도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신입생에게 지역사회 문제를 직접 탐색하고 해결 과정을 경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계기로 향후에도 고령친화 교육·체육 정책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었다.



대구 체육시설 안벽 정리

장수 시진 “청춘사진관”



일소울 팀

활동 내용

「청춘사진관」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르신의 사회적 고립과 정서적 외로움 문제에 대응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지역 공동체의 연대를 강화하고자 기획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언론영상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일소울 팀이 중심이 되어, 전공 역량을 기반으로 어르신 개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기록하는 ‘장수 사진 촬영’ 활동을 핵심 내용으로 운영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38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28명의 어르신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사진 단계에서는 대구YWCA 재가 노인돌봄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 수요를 반영한 운영 구조를 마련하였고, 촬영팀·소품 및 미용팀·인술팀·스냅사진팀·미니 다큐멘터리팀 등 역할 중심의 팀 체계를 구축하여 현장 운영의 전문성과 안정성을 확보하였다.

본 활동에 앞서 학생들은 인물 사진 촬영 역량 강화 스티디, 조명 장비 실습, 촬영 동선 점검 및 최종 리허설을 통

해 실무 역량을 체계적으로 준비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 봉사활동을 넘어, 전공 기반 사회문제 해결형 프로그램으로서의 완성도를 높였다.

본 행사는 9월 30일 산학협력관 세미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장수사진 촬영과 더불어 어르신과 학생이 함께 캠퍼스를 동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연스러운 소통과 정서적 교류의 장을 마련하였다. 동시에 활동 전 과정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하여 미니 다큐멘터리 콘텐츠를 제작함으로써 프로그램의 의미와 과정을 지속 가능한 기록물로 남겼다.

사후 단계에서는 촬영 결과물 보정, 다큐멘터리 편집 및 상영회, 피드백 스티디를 통해 프로그램 전 과정을 성찰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장수사진 인화 및 액자 제작을 완료하여 어르신에게 결과물을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주요 성과

청춘사진관 프로그램은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운영되며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총 38명의 대학생 참여, 28명의 어르신 수혜라는 직접적인 사회공헌 성과를 달성하였으며, 장수사진 결과물과 다큐멘터리 영상이라는 가시적 산출물을 제작하였다.

정성적 측면에서는 어르신들이 자신의 삶을 기록으로 남기는 경험을 통해 정서적 안정과 자존감을 회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참여 학생들은 촬영·보정·편집 등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함으로써 전공 실무 역량과 협업 능력을 실질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전

공 학습이 지역사회 문제 해결로 확장되는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전공의 사회적 가치와 공공적 역할을 체감하는 교육적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어르신과 학생이 함께 캠퍼스를 이동하며 교류하는 프로그램은 세대 간 이해와 공감을 자연스럽게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봉사를 넘어 지역 공동체 내 신뢰와 연대를 강화하는 긍정적 효과로 이어졌다. 사진과 영상이라는 기록 기반 결과물은 행사 이후에도 교내의 공유가 가능하여 프로그램 성과의 확산 가능성과 지속성을 높였다.

활동 소감문

청춘사진관은 사진 촬영이라는 매개를 통해 세대 간의 거리를 좁히고,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만남을 실현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사례였다.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삶이 존중받고 기록되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전공 역량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은 기술 습득을 넘어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공동체 의식을 함께 배우는 경험을 하였으며, 세대 공존의 가치를 현장에서 체감하였다. 청춘사

진관은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록과 관계로 남는 지역 연계 사회공헌 모델로서 연차보고서에 수록할 만한 대표적인 우수 사례라 할 수 있다



시니어 생애 재구성 및 세대 소통 프로그램



씨이어 팀

활동 내용

씨이어 팀의 「시니어 생애 재구성 및 세대 소통 프로그램」은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지역사회에서 노인이 경험하는 고립감, 정체성 상실, 세대 간 단절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기획된 연구 기반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노인의 생애 기억을 체계적으로 기록·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자아효능감과 자아통합감을 증진하고, 세대 간 소통을 통해 인문학적 문화자산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21일부터 12월 13일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총 8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6명의 어르신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화학공학, 경영학, 간호학, 문헌정보학, 한국어교육, 일본어일본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로 구성된 씨이어 팀은 기획·운영·연구·평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는 다학제 협업 구조를 구축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성서노인종합복지관 및 달서구노인문화대학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수요를 확인하고, 참여 어르신을 모집하였다. 또한 생애회고(Life Review) 이론, 자아통합 개념, 서사치료 이론을 기반으로 한 워크북을 개발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교육학적·심리학적 타당성을 강화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자 친화적 구성과 단계적 회상 구조를 갖춘 프로그램 설계를 완성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총 4회차로 운영되었으며, 인생 곡선 그리기, 주요 전환점 도출, 자서전 구조 설계, 1:1 심화 인터뷰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각 회차는 '회상-수용-의미화-공유'의 4단계 구조를 적용하여, 긍정적 경험뿐 아니라 부정적 경험까지 포함한 '수용적 회상'을 가능하게 설계하였다. 프로그램 종료 후에는 어르신 6인의 자서전을 최종 완성하고, 피드백 회의 및 자체 연구회를 통해 프로그램 개선 방향을 도출하였다.





주요 성과

씨히어 팀의 프로그램은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한 연구 기반 사회공헌 사례로 평가된다. 정량적으로는 어르신 6명 참여, 자서전 6부 제작, 총 4 회차 프로그램 운영이라는 목표를 100% 달성하였으며, 참여 학생 수는 목표 대비 133%를 기록하였다. 또한 1차 워크북 완성과 함께 차기 시즌을 위한 개선 워크북 개발을 병행하여 프로그램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 어르신들은 자신의 삶을 체계적으로 기록하는 과정을 통해 자존감과 성취감을 회복하였으며, 과거의 어려움과 기쁨을 함께 수용하며 자아통합감을 증진하는 변화를 보였다. 일부 참여자는 “내 삶이 기록할 만한 가치가 있다”, “죽음을 앞두

고도 내 삶이 헛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남기는 등 심리적 안정과 삶의 의미 재인식이라는 핵심 성과가 확인되었다.

학생 봉사단 측면에서는 노인 심리, 생애회고 이론, 질적 인터뷰 기법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기획·실행·평가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긍정 강요를 지양하고 부정적 경험을 포함하는 ‘수용적 회상’의 중요성을 실증적으로 확인함으로써, 기존 노인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학문적·실천적 성과를 도출하였다. 지역사회 차원에서 성서노인종합복지관과의 지속적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달서구노인문화대학의 공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 소감문

씨히어 팀의 시니어 생애 재구성 프로그램은 노인의 삶을 단순한 회상이 아닌 ‘통합의 과정’으로 존중하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어르신들에게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의미를 부여하는 시간이 되었으며, 학생들에게는 세대의 지혜를 경청하며 사회적 가치의 깊이를 체감하는 경험이 되었다.

본 활동은 대학생 봉사단이 연구와 실천을 결합하여 지역사회의 구조적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 단기 프로그램을 넘어 지속 가능한 확장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씨히어 팀의 활동은 고령화와 세대 단절 문제 해결을 위한 대학-지역사회 협력의 모범적 사례로서, 향후 지역 확산과 정책·문화 콘텐츠로의 발전 가능성을 지닌 의미 있는 성과라 할 수 있다.

폐 PET 지역순환 프로젝트

스마트솔루션 팀



활동 내용

「폐 PET 지역순환 프로젝트」는 일회용 컵 사용 증가와 낮은 재활용 회수율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응하고,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자원 선순환 구조를 실증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기획된 공학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화학공학과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스마트솔루션 팀은 폐 PET 컵의 수거부터 재활용 공정 연계까지 전 과정을 직접 설계·운영하며, 재활용 인식 개선과 기술적 실증을 동시에 추진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7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교내 일회용 컵 다소비 공간을 중심으로 수거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고, 공학 1호관과 3호관에 폐 PET 카페 컵 전용 수거함을 설치하였다. 수거함에는 분리배출 기준을 명확히 안내하는 포스터와 QR코드 안내물을 부착하여 학생 참여를 유도하였다.

현장 운영 단계에서는 교내 카페와 협력하여 음료 판매 시 수거함 위치 안내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으며, 주 3회 정기 회수를 통해 오염 관리와 수거 효율을 동시에 확보하였다. 수거된 폐 PET 컵은 선별·세척·건조·파쇄 공정을 거쳐 재활용 전처리 과정을 수행하였고, 이후 반응 압출 공정을 통해 고품질 재생 원료 생산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특히 Bottle-to-Bottle 기계적 재활용 흐름을 적용하여, 수거 활동이 실제 재활용 공정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명확히 제시하였다.

아울러 재활용 인식 개선을 위해 공식 SNS 계정을 운영하며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주간 수거 현황, 캠페인 진행 상황을 카드 뉴스 형태로 지속적으로 게시하였다. OX 퀴즈, 스토리 투표, 지정 배출 인증 챌린지 등 참여형 이벤트와 오프라인 포스터 캠페인을 병행함으로써 온·오프라인 연계 홍보 체계를 구축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젝트는 교내 자원순환 체계를 실질적으로 가동한 실증형 사회공헌 사례로서 정량적·정성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정량적으로는 공학 1·3호관에 총 3곳의 폐 PET 전용 수거 거점을 구축하고, 3주간 총 302개의 PET 카페 컵을 회수하였다. 정기 회수는 총 9회 이루어졌으며, SNS 게시물 11건과 다수의 참여형 이벤트를 통해 학생 참여 기반을 확장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분리배출 안내물과 반복적인 노출을 통해 교내 구성원의 재활용 인식 개선을 유도하였으며, 교내 카페 협력을 통해 음료 구매-배출-회수로 이어지는 동선 기반 참여 구조를 마련하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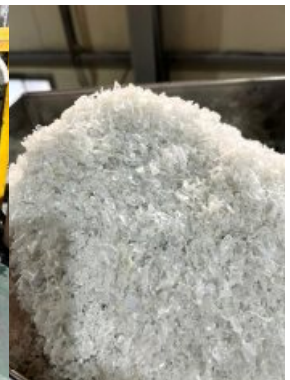
다. 기술적 측면에서는 수거-선별-세척-파쇄-반응 압출에 이르는 Bottle-to-Bottle 공정 흐름을 체계화하고, 재생 PET의 고유점도(IV) 변화를 측정하여 재활용 원료의 품질 지표를 데이터로 제시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공학적 지식과 실험 역량을 실제 지역 사회 문제 해결에 적용함으로써 연구·설계·운영 역량을 종합적으로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젝트는 재활용 공정과 캠페인을 연계하여 기술적 신뢰성을 확보한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향후 정량 데이터 축적을 통한 확장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활동 소감문

폐 PET 지역순환 프로젝트는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인식 개선 활동과 공학적 실증을 결합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단순한 분리배출 홍보를 넘어, 실제 재활용 공정과 연결되는 구조를 구축함으로써 자원 선순환의 중요성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기술이 사회 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을 경험하였으며, 캠퍼스를 기반으로 한 작은 실천이 지속 가능한 변화로 확장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다. 스마트솔루션 팀의 프로젝트는 대학 내 자원순환 모델 구축을 위한 출발점으로서, 향후 교내외 확산과 고도화 가능성을 지닌 우수한 사회공헌 사례라 할 수 있다.



세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달서구!



달서구환경문제 팀

○ 활동 내용 ○

「세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달서구!」는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출발점으로 지구적 환경 이슈까지 사고를 확장하고, 아동들이 일상 속 실천으로 이어지는 세계시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획된 교육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교육학과 학생들로 구성된 달서구환경문제 팀은 아동 눈높이에 맞춘 참여형·체험형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 환경문제에 대한 이해와 책임감을 함양하는 것을 목표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5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5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16명의 지역 아동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활동 장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로뎀나무지역아동센터로, 매주 토요일 총 6차시에 걸쳐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1차시에서는 교사와 아동 간 라포 형성을 중심으로 협동

게임과 환경 관련 놀이 활동을 진행하여 프로그램 참여에 대한 흥미와 신뢰를 형성하였다. 2차시에서는 ‘달서구의 환경문제’를 주제로 쓰레기, 하천, 생활환경 사진 자료와 퀴즈 활동을 활용하여 지역사회 환경문제를 탐색하고, 분리수거 체험을 통해 생활 속 실천을 경험하였다. 3차시에서는 ‘지구 환경문제 알아보기’를 주제로 쓰레기 섬, 지구 온난화 등 글로벌 환경 이슈를 다루고, 정수 키트 실험을 통해 환경 오염의 실질적 영향을 체감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4차시에는 플로깅 활동과 커피찌꺼기를 활용한 키링 만들기 등을 통해 환경 보호 실천 활동을 직접 수행하였으며, 5차시에는 Suno AI를 활용한 환경 노래 만들기와 코딩 키트 제작 활동을 통해 디지털 기술과 환경 메시지를 결합한 창의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마지막 6차시에서는 전체 활동을 성찰하고 ‘환경 지킴이 다짐 약속 나무’를 제작하며 지속적인 실천 의지를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아동 대상 환경교육을 통해 지역-지구 환경문제의 연계성을 이해시키고, 실천 중심의 세계 시민 역량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량적으로는 총 6차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5명의 대학생과 16명의 아동이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안정적인 운영 성과를 달성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아동들이 달서구의 환경문제를 출발점으로 지구 환경문제까지 사고를 확장하며, 자신의 일상 행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변화를 보였다. 분리수거 실습, 플로깅, 업사이클링 체험 활동을 통해 환경 보호가 '배워야 할 지식'

이 아닌 '실천할 수 있는 행동'임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프로그램 종료 후 "우리 동네를 더 깨끗하게 만들고 싶다", "집에서도 분리수거를 잘해야겠다"와 같은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또한 놀이·체험·디지털 도구를 결합한 수업 구성은 아동의 참여도와 몰입도를 높였으며, 교육 흐름의 연계성과 완성도 측면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대학생 참여자들은 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기록 전 과정을 수행하며, 예비 교육자로서의 실천 역량과 지역 사회 연계 경험을 축적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 소감문

「세계와 더불어 나아가는 달서구!」 프로그램은 환경문제를 어렵고 먼 주제가 아닌, 아이들의 일상과 연결된 문제로 인식하도록 돕는 의미 있는 교육형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아동들은 놀이와 체험을 통해 환경문제를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작은 실천이 지역과 지구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형성하였다.

본 활동을 통해 대학생 참여자들은 교육의 힘과 책임을 현장에서 체감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교육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달서구환경문제 팀의 프로그램은 지역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적 접근의 우수 사례로서, 향후 아동·청소년 대상 환경교육 모델로 확산 가능성을 지닌 사회공헌 사례라 할 수 있다.



세계와 지역 그리고 계명을 잇는 역사적인 지하철 역사 만들기

캠얼마나 팀



활동 내용

「세계와 지역 그리고 계명을 잇는 역사적인 지하철 역사 만들기」 프로그램은 노후화된 계명대역 지하철 역사 내 문화 콘텐츠를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하여, 공공 교통공간의 미관을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대학을 잇는 상징적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자 기획된 공공공간 개선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젝트는 약 10여 년 전 계명대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여 조성한 포토월과 문구 콘텐츠의 상징성을 계승 확장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13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30명의 학생이 참여하고 지하철 이용객 및 지역 주민 27명이 직·간접적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경영정보학, 경영학, 광고홍보학, 심리학, 국제관계학 등 다양한 전공으로 구성되어, 기획·디자인·홍보 기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협업 구조를 구축하였다.

초기 단계에서는 6개 소팀으로 나뉘어 계명대역 리뉴얼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도출하였으며, 전체 회의를 통해 실행 가능성과 공공성, 예산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한 2개 실행 팀을 최종 선정하였다. 이후 기획·디자인·홍보 부서를 중심으로 팀을 재편성하여 단계별 과제 수행에 착수하였다.

기획 단계에서는 세계지도 타이포그래피, 참여형 포토월, 밈(meme) 요소를 활용한 포토존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계명대역 이용객 동선과 공간 특성을 반영한 최종 기획안을 확정하였다. 디자인 단계에서는 방역 재질 시트지 사용 등 공공시설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 디자인 시안을 제작하고, 인쇄·시공 업체 협의를 통해 실제 설치가 가능한 형태로 완성도를 높였다. 홍보 단계에서는 전용 인스타그램 계정을 개설하여 리뉴얼 과정과 결과를 콘텐츠로 제작·공유하며, 지역 주민과 이용객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였다.

최종적으로 12월 30일부터 31일까지 계명대역 현장에서 포토월 및 문구 디자인 시공을 진행하였으며, 모든 참여 인원이 시공 과정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공공공간 개선을 통해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총 30명의 학생이 기획·디자인·홍보·시공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계명대역 내 주요 벽면을 중심으로 포토월 및 문구 리뉴얼을 성공적으로 완료하였다. 모든 참여 학생이 최소 1회 이상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높은 참여율을 기록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노후화된 지하철 역사 공간이 보다 현대적이고 친근한 이미지로 개선되었으며, 이용객에게 새로운 공간 경험을 제공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지역의 다문화적 특성과 대학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구와 디자인은 공공공간이 단순한 이동 공간을 넘어 소통과 공감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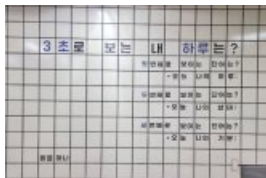
학생 참여자들은 공공시설 시공이라는 제한된 환경 속에서 예산 관리, 안전 기준 준수, 행정 협의의 중요성을 체감하며 실무적 문제 해결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젝트는 팀 분화와 역할 분담을 통해 협업 구조를 체계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이론 중심 학습을 넘어 현장 적용 능력을 고루 경험할 수 있는 교육적 효과가 높은 사례로 평가되었다.

또한 전용 SNS 채널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는 프로젝트의 취지와 성과를 교내외로 확산시키는 역할을 하였으며, 향후 이벤트 운영과 정기적인 현장 점검 계획을 통해 리뉴얼 공간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활동 소감문

캠엘마나 팀의 계명대역 리뉴얼 프로젝트는 공공공간이 지닌 사회적 가치와 대학의 지역 기여 가능성을 현장에서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학생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시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며, 작은 아이디어가 실제 공간 변화로 이어지는 경험을 통해 성취감과 책임감을 함께 느낄 수 있었다.

본 활동을 통해 참여자들은 대학생의 창의성과 전문성이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을 잇는 중요한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으며,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 주도의 공공공간 개선이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향후 유사한 지역 연계 프로젝트로 확산 가능한 우수한 사회공헌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따뜻한 끼 팀

활동 내용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은 취업난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거 청년을 대상으로, 따뜻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서적 위로와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기획된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활동은 달서구청의 협조를 통해 지원이 필요한 독거 청년 가정을 추천받아 추진되었으며, 식품가공학과 및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이 전공 역량을 활용해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22일부터 12월 29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2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달서구 내 독거 청년 25가정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메뉴 기획, 식재료 선정, 조리, 포장, 배달까지 전 과정을 역할 분담하여 수행함으로써 체계적인 운영 구조를 마련하였다.

2학기 동안 총 4회에 걸쳐 도시락 나눔 활동이 이루어졌다.

- 1회차에는 비빔밥과 국, 전, 반찬류, 과일 등 한식 위주의 균형 잡힌 식단을 제공하였고,
- 2회차에는 잡채를 중심으로 한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준비하였다.
- 3회차에는 사태찜과 미역죽 등 계절과 건강을 고려한 메뉴를 구성하였으며,
- 4회차에는 크리스마스를 맞아 함박스테이크와 스프, 샐러드 등 양식 위주의 특별 도시락을 준비하였다.

모든 회차는 이른 오전 7시부터 조리와 포장을 시작하여 각 가정에 직접 배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활동 후에는 회의를 통해 운영 과정을 점검하고 개선점을 공유하여 회차가 거듭될수록 활동의 효율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주요 성과

본 도시락 나눔 프로그램은 계획된 지원 대상과 횟수를 충실히 달성하며, 정서적·실질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독거 청년 25가정을 대상으로 총 4회에 걸쳐 도시락을 안정적으로 제공하였으며, 20명의 대학생이 전 과정에 참여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수혜자들로부터 음식의 맛과 구성, 포장 상태 등에 대해 전반적으로 높은 만족도와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잘 먹겠다”,

“챙겨줘서 고맙다”는 직접적인 피드백은 활동의 의미와 효과를 현장에서 체감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 학생들은 전공 지식을 실제 조리·품질관리·배달 과정에 적용하며 실천적 학습 경험을 쌓았고, 팀 단위 협업을 통해 책임감과 공동체 의식을 강화하였다. 또한 봉사란 단순한 지원 활동이 아닌,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인식하는 계기로 삼으며 사회적 감수성과 리더십을 함께 성장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

활동 소감문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활동은 도시락이라는 매개를 통해 따뜻한 마음과 응원을 함께 전할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회 공헌 경험이었다. 이른 아침부터 재료 손질과 조리, 포장, 배달까지 이어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팀원들이 서로 협력하며 하나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나눔과 섬김의 가치를 깊이 느낄 수 있었다.

도시락을 전달하며 수혜자들의 감사 인사를 직접 마주한 순간은 활동의 보람을 더욱 크게 느끼게 했으며,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하루에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활동을 통해 앞으로도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인재로 성장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
2025학년도 지역밀착형 사회문제 해결(EUP) 프로그램

계명대학교 식품가공학과 (따뜻한끼 도시락 나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이다. (사편23:1)

지도교수 : 오세연 교수님
참여학생 : 김예진, 하태준, 박남규, 송민지, 김어진, 백주원,
장지윤, 한진용, 천유진, 성진경, 조치은, 박도현,
정예원, 김환서, 여동욱, 노윤서, 성나연, 이성주, 손우영

마음-길 찾기 프로젝트: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심리학도 멘토-멘티 진로 탐색 프로그램



꿈드림 팀

○ 활동 내용 ○

「마음-길 찾기 프로젝트」는 제도권 교육을 이탈한 학교 밖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 불안, 사회적 고립, 진로 탐색의 어려움에 주목하여, 심리·정서 지원과 진로 설계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기획된 지역밀착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꿈드림팀은 심리학과 재학생들이 멘토로 참여하여, 유사 연령대의 관계 형성을 바탕으로 학교 밖 청소년의 자기 이해 증진과 진로 방향 탐색을 지원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약 4개월간 운영되었으며, 총 10명의 심리학과 학생이 멘토로 참여하고 10명의 학교 밖 청소년이 멘티로 함께하였다. 달서구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달서구청, 진로진학지원센터 등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추진되었다.

사전 단계에서는 협력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대상 청소년의 특성과 요구를 파악하고, 멘토 학생을 대상으로 상담 윤리, 멘토링 기법, 학교 밖 청소년 이해를 중심으로 한 사전 교육과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하였다. 이후 초기 면담을 통해 각 멘티의 심리 상태와 진로 고민을 파악하고 맞춤형 멘토링 계획을 수립하였다.

프로그램 운영 단계에서는 월별 주제에 따라 회기를 구성하였다. 10월에는 성격·흥미 검사와 회복탄력성 증진 활동을 중심으로 자기 이해와 정서적 안정에 초점을 두었고, 11월에는 직업 카드 활동과 진로 탐색 워크숍을 통해 다양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단·중기 진로 목표를 설정하였다. 12월에는 모의 면접과 자기소개서 작성 가이드를 통해 실질적인 진로 준비를 지원하고, 만들기 활동 등 체험형 프로그램을 통해 자존감 향상을 도모하였다. 2026년 1월에는 수료식과 성과 공유 시간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학교 밖 청소년의 심리·정서적 안정과 진로 인식 구체화라는 두 가지 핵심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다. 정량적으로는 멘토 학생 10명과 멘티 청소년 10명이 참여하여 계획된 전 회기를 안정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지역 유관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통해 프로그램 전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참여 청소년들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빈도가 증가하고, 프로그램 초기에 나타났던 불안감과 위축감이 점차 완화되는 변화를 보였다. 성격·흥미 검사와 상담적 접근을 통해 자신의 강점과 성향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긍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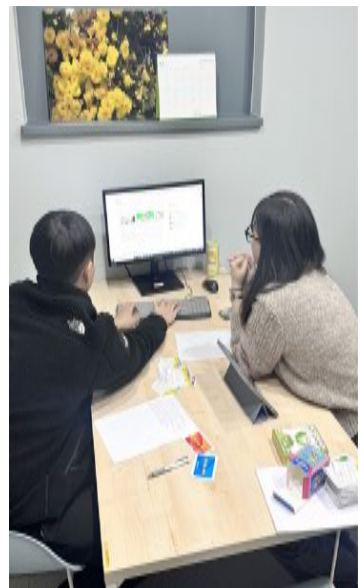
적 자아상 형성과 정서적 안정으로 이어졌다.

또한 진로 탐색 워크숍과 목표 설정 활동을 통해 막연했던 진로 고민이 구체적인 관심 분야와 진로 키워드로 정리되었고, 단·중기 진로 로드맵을 스스로 설계하는 경험을 제공하였다. 멘토로 참여한 대학생들은 심리학 전공 지식을 실제 현장에 적용하며 예비 전문가로서의 실무 역량과 사회적 책임감을 강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본 프로그램은 대학의 전문성을 지역사회 청소년 문제 해결에 연계한 사례로서, 지역밀착형 지원 모델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활동 소감문

마음-길 찾기 프로젝트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자신을 이해하고 미래를 다시 그려볼 수 있는 기회를, 대학생 멘토에게는 전공 지식을 사회적 가치로 확장하는 경험을 제공한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회기가 거듭될수록 멘티들이 점차 마음을 열고 자신의 고민과 꿈을 이야기하는 모습은 프로그램의 의미를 더욱 깊게 느끼게 했다.

참여 학생들은 단순한 진로 정보 제공을 넘어, 경험과 공감을 기반으로 한 관계 형성이 청소년 지원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체감하였으며, 이번 경험을 통해 앞으로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꿈드림팀의 활동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을 위한 심리학 기반 멘토링 프로그램의 우수 사례로서, 향후 지속적·확장적 운영 가능성을 지닌 사회공헌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범죄피해자 법정동행 모니터링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



누리보듬 팀

활동 내용

「범죄피해자 법정동행 모니터링 및 심리회복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가 재판 과정에서 겪는 심리적 부담과 정보 접근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지역사회 차원의 실질적인 심리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자 기획된 전문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심리학과와 학문적 전문성을 지역 현안 해결에 접목하여,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을 지원하는 동시에 학생들에게는 공공 영역 실무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운영되었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1월 15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심리학과 학부 및 대학원생 14명과 지도교수 1명 등 총 15명이 참여하였다. 수혜자는 대구 달서구 지역 범죄피해자 15명으로, 대구서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와의 협력 체계를 기반으로 활동이 이루어졌다.

사전 단계에서는 참여 학생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과

소양 교육을 실시하여, 프로그램의 취지와 운영 구조, 법정 모니터링의 사회적 의미를 공유하였다. 또한 범죄피해자의 심리적 특성, 재판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정서 반응, 법정 방청 시 요구되는 윤리적 태도와 주의사항에 대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전문적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다.

본 활동의 핵심은 '법정 모니터링'으로, 참여 학생들이 실제 재판에 방청하여 진행 과정을 객관적으로 기록하고 이를 피해자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정리·전달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다. 피해자는 직접 법정에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의 주요 쟁점과 결과를 파악할 수 있었으며, 학생들은 법적 절차와 공공 영역에서의 심리학적 역할을 현장에서 체득하였다. 활동 전반에는 지도교수 주도의 정기적인 슈퍼비전이 병행되어, 학생들의 경험을 전문적 관점에서 성찰하고 역량을 심화하는 구조를 갖추었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이 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총 14명의 학생이 법정 모니터링과 슈퍼비전에 참여하였으며, 15명의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재판 정보 전달과 심리적 부담 완화 지원을 제공하였다. 계획된 일정과 내용은 모두 차질 없이 수행되었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범죄피해자가 재판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도 재판 진행 상황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안과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였다. 이는 정보 부족으로 인한 2차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

에 기여한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참여 학생들은 법정 환경에서의 객관적 기록, 책임 있는 정보 전달, 윤리적 판단의 중요성을 실제 사례를 통해 학습하였다. 정기적인 지도교수 슈퍼비전을 통해 활동의 적절성과 한계를 점검하며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임상심리사 2급 자격증 취득에 필요한 실습 시간을 충족하는 성과도 함께 달성하였다. 또한 대학과 지역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간의 관학협력 모델을 안정적으로 정착시켜, 향후 유사 사업으로의 확장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활동 소감문

누리보듬 팀의 활동은 범죄피해자의 회복 과정에 대학의 전문성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회공헌 경험이었다. 참여 학생들은 단순한 봉사를 넘어, 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책임 있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큰 사명감을 느꼈다.

법정 모니터링과 슈퍼비전 과정을 통해 학생들은 심리학 전공 지식이 공공 영역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으며, 지역사회 안전망 강화에 기여하는 전문가로 성장하고자 하는 동기를 확립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한 지속 가능한 지역 협력 모델로서, 대학 주도의 사회문제 해결 사례 중 하나로 평가될 수 있다.



영양 취약계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 다문화가정 맞춤형 영양교육

영양이들 팀



○ 활동 내용 ○

「영양 취약계층 영양 지원 프로그램」은 영양 정보 접근성이 낮고 식생활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실생활에 바로 적용 가능한 체험형 영양교육을 제공하고자 기획된 보건·영양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영양이들 팀은 식품영양학 전공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생활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설계하여, 영양 지식 향상과 식습관 개선을 목표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3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식품영양학과 학생 4명과 지도교수 1명이 참여하였다. 수혜자는 달서구보건소와 연계한 다문화가정 어머니 10명으로, 지역 보건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프로그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었다.

사전 단계에서는 영양 취약계층의 특성과 요구를 분석하

여 교육 주제와 방식을 설정하였다. 특히 가정 내에서 가장 밀접하게 활용되는 **냉장고**를 중심으로 식품 보관과 선택 방법을 교육 주제로 선정하고, 체험형 교육이 가능하도록 냉장고 모형 교구와 식품 모형, 시각 자료 중심의 교육 콘텐츠를 기획·제작하였다.

교육은 달서구보건소에서 진행되었으며, 본 교육에 앞서 참여자의 인바디 및 혈압 측정 보조 활동을 통해 현재 영양 상태를 파악하고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후 냉장실·냉동실 적정 온도, 식품 보관 위치, 유통기한 관리, 위생적 냉장고 청소 방법 등에 대해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을 실시하였다. 교육 종료 후에는 만족도 조사와 팀 내부 회의를 통해 운영 성과와 개선점을 점검하였다.



O.X 퀴즈



활동 마무리 및 건강 응원



체험 수혜자와 체험 교구 활용 모습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체험형 영양교육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영양 인식 개선과 실천 가능성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량적으로는 식품영양학과 학생 4명과 다문화 가정 어머니 10명이 참여하여 계획된 교육 프로그램을 안정적으로 운영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일상생활과 직결된 냉장고 관리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이해도와 교육 몰입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식품 보관 및 선택에 대한 인식 변화가 확인되었다. 특히 시각 자료와 모형 교구를 활용한 체험형 교육 방식은 언어 장벽이 있는 다문화가

정 어머니들에게 효과적인 학습 도구로 작용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 기획, 교구 제작, 현장 교육 진행, 평가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며 실무 경험과 현장 대응 능력을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다문화가정의 식생활 개선뿐 아니라, 참여 학생들의 전공 기반 사회공헌 역량을 함께 성장시킨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본 활동을 통해 제작된 교구와 교육 자료는 향후 재활용이 가능하여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확장 가능성을 확보하였다.

활동 소감문

영양이들 팀의 활동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음을 직접 확인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단순한 이론 전달이 아닌, 체험형 교육을 통해 다문화 가정 어머니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교육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었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 준비부터 현장 운영까지 전 과정에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며, 협업과 소통의 중요성을 깊이 체감하였다. 이번 활동을 계기로 앞으로도 영양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지역사회 연계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다짐을 갖게 되었다.



교육수혜자 검진 보조



체험 교구

활동지 제작 자료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영양·식생활 교육: 「먹go! 씻go! 튼튼하go!」

보드득 밥상 탐험대 팀



○ 활동 내용 ○

「먹go! 씻go! 튼튼하go!」 프로그램은 아동기에 형성되는 식습관과 위생 습관이 평생의 건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 주목하여, 예방적 차원의 영양·위생 교육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기 어려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기획된 교육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보드득 밥상 탐험대 팀은 식품영양학과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아동의 눈높이에 맞춘 체계적이고 참여 중심적인 교육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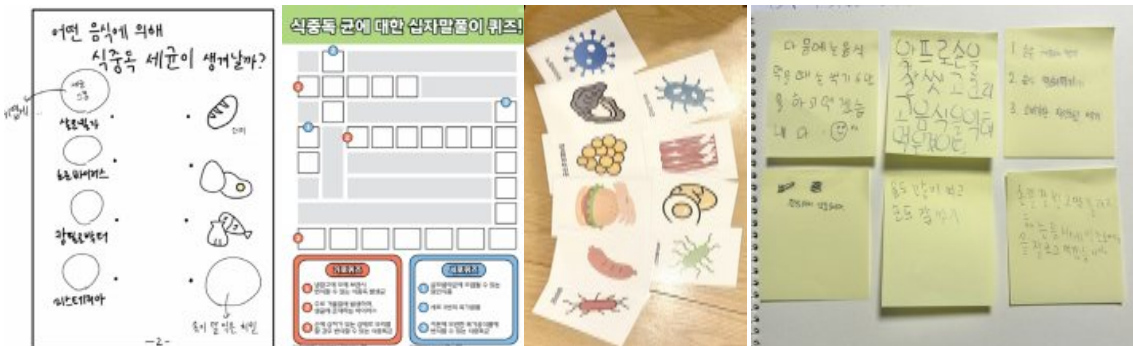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1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식품영양학과 학생 8명이 참여하였다. 활동은 대구 달서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8곳을 대상으로 총 10회에 걸쳐 운영되었고, 약 200명의 아동이 교육 수혜자로 참여하였다.

교육은 크게 위생교육과 영양교육으로 구분하여 구성되었다. 위생교육은 식중독 예방을 중심 주제로 설정하여, 식중독의 개념과 주요 원인 식품, 증상 및 예방법, 손 씻기의

중요성, 소비기한 개념 등을 다루었다. 강의식 이론 교육 후에는 카드 게임, 퀴즈, 활동북 작성 등 참여형 활동을 통해 아동들이 교육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영양교육은 아동의 일상 식생활과 밀접한 주제를 중심으로 당 섭취 교육과 비만 예방 교육으로 구성되었다. 당 교육에서는 각설탕 모형을 활용해 음료 속 당 함량을 시각적으로 확인하고, '나만의 텀블러 만들기' 활동을 통해 건강한 음료 선택의 중요성을 전달하였다. 비만 예방 교육에서는 식품 구성 자전거를 활용한 스티커 붙이기 활동과 보석 십자수 만들기를 통해 균형 잡힌 식사의 개념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교육은 강의-활동-다짐 작성의 흐름으로 구성되었으며, 교육 종료 후에는 아동들이 직접 실천 다짐을 작성하고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교육 효과를 점검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계획 단계에서 설정한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며, 아동 대상 영양·위생 예방교육의 실질적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지역아동센터 8곳을 대상으로 총 10회 교육을 운영하였으며, 약 200명의 아동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이론 교육과 참여형 활동을 병행함으로써 아동의 집중도와 이해도를 효과적으로 높일 수 있었다. 교육 후 작성된 다짐 내용에는 “음식을 먹기 전 손 씻기 6단계를 지키겠다”, “소비기한을 확인하고 음식을 먹겠다”, “편식하지 않겠다” 등 교육의 핵심 메시지가 반영되어, 아동들이 교육 내용을

자신의 생활과 연결하여 인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AI 기술을 활용해 제작한 시각 자료와 영상 콘텐츠는 아동의 흥미를 유도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으며, 기존 교육 방식과 차별화된 교육 모델을 제시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교육 기획, 교구 제작, 현장 교육 운영, 피드백 반영 전 과정을 수행하며 전공 기반 실무 역량과 교육자로서의 전문성을 함께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전공 특성을 효과적으로 반영한 우수한 지역사회 교육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보드득 밥상 탐험대 팀의 활동은 아동 대상 교육에서 ‘어떻게 가르치느냐’가 참여도와 효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체감하게 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닌, 아동이 스스로 자신의 건강을 인식하고 실천 의지를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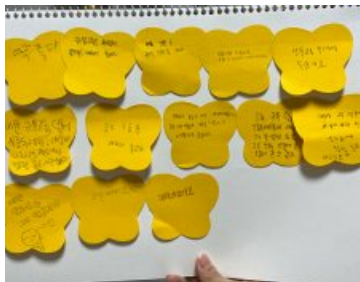
교육 준비 과정에서는 아동의 연령과 이해 수준을 고려한 콘텐츠 구성에 어려움도 있었으나, 지도교수와 현장 전문가의 피드백을 반영하며 교육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었다. 현장에서 아동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다짐을 진지하게 작성하는 모습을 통해 교육의 성과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참여 학생들에게 큰 보람으로 남았다. 본 활동은 향후 아동 대상 영양·위생 교육 프로그램의 확장고도화를 위한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영양 식생활 교육 활동 모습



만족도 조사



다짐 써보기

함께 만드는 배움 터전 생태계 프로젝트: 느린학습자 맞춤형 워크북 개발



BIF 팀

○ 활동 내용 ○

「함께 만드는 배움 터전 생태계 프로젝트」는 일반 학습자와 특수교육 대상자 사이에서 충분한 교육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느린학습자(경계선 지능인)**의 학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 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교육 환경의 포용성을 강화하고자 기획된 교육 기반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BIF 팀은 교육학과 예비 교육전문가로 구성되어, 현장의 실제 요구에 부합하는 실질적 학습 지원 자료를 개발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20일부터 12월 18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교육학과 학생 5명이 참여하였다. 팀은 프로젝트 총괄, 워크북 기획·제작, 자료 조사, 전문가 협의, 인쇄 및 대외 협력 등 역할을 분담하여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운영하였다.

활동은 총 3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기획 및 준비 과정으로, 느린학습

자의 인지적·학습적 특성에 대한 문헌 조사와 기존 교육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 종사자와 학부모의 요구를 파악하고, 전문가 자문을 통해 워크북 개발의 방향성과 핵심 학습 목표를 구체화하였다.

2단계에서는 본격적인 워크북 개발 및 제작을 수행하였다. 워크북은 사회인지 영역 6파트, 신경인지 영역 6파트로 구성된 총 12파트로 설계되었으며, 각 파트는 독립적으로도 활용 가능하면서 순차 학습 시 점진적 성취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조화하였다. 시각 자료, 도식, 체크리스트를 적극 활용하고 문장 표현을 단순화하여 가독성을 높였으며, 난이도를 단계적으로 조절해 반복 학습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제작 전 과정에서 전문가 및 현장 종사자의 피드백을 반영하여 교육적 적합성과 현장 활용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였다.

3단계에서는 워크북의 활용 및 확산 계획을 수립하여, 대구 지역 내 느린학습자 지원 기관과 교육 현장을 중심으로 보급·연계 방안을 마련하였다.



서울 느린 학습자 전문 학교 선진지 견학

주요 성과

본 프로젝트는 느린학습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 자료 개발이라는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며, 교육적·사회적 성과를 동시에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교육학과 학생 5명이 참여하여 총 12파트로 구성된 워크북 1종을 완성하였으며, 관련 종사자와 보호자를 위한 보조 자료도 함께 제작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기존의 일반 학습자 또는 특수교육 대상자 중심 자료가 지니던 한계를 넘어, 느린학습자의 인지 수준과 학습 속도를 고려한 단계별·활동 중심 콘텐츠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였다. 시각 자료 중심 구성과 난이도 조절이 가능한 활동 설계는 학습자의 이해도와 참여

도를 높이고, 반복 학습을 통해 성취 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현장 종사자와 학부모가 지도 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는 정보성 자료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경험이나 시행착오에 의존하던 기존 지도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였다. 이는 느린학습자를 둘러싼 교육 환경 전반의 질적 향상과 지역사회 교육 지원 체계 강화로 이어지는 성과로 평가된다. 참여 학생들은 프로젝트 기획부터 자료 조사, 콘텐츠 개발, 전문가 협의, 확산 계획 수립까지 전 과정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며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실무 역량과 협업 능력을 크게 강화하였다.

활동 소감문

BIF 팀의 활동은 교육학 전공에서 배운 이론과 가치가 실제 교육 현장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를 깊이 성찰하게 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느린학습자를 위한 워크북 제작 과정은 단순한 자료 개발을 넘어, 교육이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계기가 되었다.

워크북의 문장 하나, 시각 자료의 배치, 활동의 난이도 순서까지 학습자의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체감하며, 교육 자료 개발이 얼마나 섬세한 작업인지를 깨닫

게 되었다. 전문가와 현장 종사자와의 협업을 통해 교육 이론이 실제 현장에서는 학습자와 환경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되어야 함을 인식하게 되었으며, 이는 예비 교육전문가로서의 책임감과 윤리 의식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활동은 교육의 역할이 교실 안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 내 교육적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였다. 참여 학생들은 이번 경험을 통해 학습자의 속도와 차이를 존중하는 포용적 교육을 실천하는 교육자로 성장하고자 하는 분명한 방향성을 갖게 되었다.



학습자 분석 및 워크북 개발 회의



전문가 멘토링



워크북 책자 제작

대구 청년 문화 'ON' 프로젝트: 지역 문화공간 연계 청년 음악 공연

도레미 팀



○ 활동 내용 ○

「대구 청년 문화 'ON' 프로젝트」는 지역 내 문화공간이 일회성 방문 장소에 그치지 않고, 청년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문화 활동의 장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기획된 청년문화 활성화 프로그램이다. 도레미 팀은 통기타 동아리 학생들로 구성되어, 접근성이 높은 음악 공연을 매개로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소통하며 지역 문화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부터 12월까지 약 3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1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약 38명의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활동 장소는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대구달성문화우체국으로, 청년 문화 콘텐츠를 지역 거점 문화공간과 연계하여 운영하였다.

활동 준비 단계에서는 통기타 동아리 회장을 중심으로 정기 회의를 진행하며 공연의 방향성과 콘셉트를 설정하였다. 지역성과 대중성을 고려한 곡 선정, 구성원별 연주 역할을 반영한 세션 분배를 통해 모든 참여자가 공연의 주체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하였다. 이후 매주 정기 합주를 실시하며 곡의 템포와 흐름, 곡 간 연결을 점검하고, 합주 후 피드백을 통해 공연의 완성도를 단계적으로 높였다.

공연 당일에는 사전 리허설을 통해 무대 배치와 음향 장비를 점검하고, 약 1시간 동안 통기타 연주 중심의 공연을 진행하였다. 공연 중에는 관객 반응에 따라 분위기를 조율하며, 청년 음악 공연 특유의 현장감과 친밀감을 살리는 데 주력하였다.

○ 주요 성과 ○

본 프로젝트는 청년 문화 활동과 지역 문화공간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대학생 10명이 참여하여 지역 문화공간에서 청년 주도 공연 1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으며, 약 38명의 지역 주민과 관람객이 공연에 참여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대구달성문화우체국이라는 지역 문화거점 공간이 청년 문화 콘텐츠를 수용하는 장소로 재조명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단순한 공연 개최를 넘어, 청년들이 기획부터 실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며 문화 생산자로 참여하는 구조를 실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공연 준비 과정에서 회의와 합주를 통해 구성원 간 협업과 의사소통이 강화되었으며, 무대 운영 경험을 통해 참여 학생들의 공연 역량과 자신감이 향상되었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활동은 청년의 자발성과 지역 연계성이 돋보이는 프로젝트로서, 향후 지역 문화공간과의 지속적인 협력 모델로 확장 가능성이 높은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 활동 소감문 ○

도레미 팀의 활동은 음악이 개인의 취미를 넘어 지역사회와 연결될 수 있음을 직접 경험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공연 준비 과정에서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조율하고 하나의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과정은 쉽지 않았지만, 그만큼 팀워크와 책임감을 함께 성장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지역 문화공간에서의 공연은 청년 문화가 지역 주민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으며, 무대 위에서는 단순한 연주를 넘어 함께 준비한 시간과 노력이 자연스럽게 드러났다고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앞으로도 음악을 매개로 지역과 소통하는 문화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갖게 되었으며, 청년 문화의 주체로서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을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김충선 장군 숨결 깃든 가창, 청년 예술 프로젝트: 우록리 지역 자원 활성화를 위한 마을 벽화 조성

함께하게 팀



활동 내용

「김충선 장군 숨결 깃든 가창, 청년 예술 프로젝트」는 대구 달성군 가창면 우록리 마을이 지닌 역사·문화적 가치를 예술 활동을 통해 시각적으로 재조명하고, 노후화된 마을 환경을 개선하여 지역 공동체의 활력을 회복하고자 기획된 공공미관 개선형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임진왜란 당시 귀화하여 조선에 공을 세운 김충선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벽화에 담아, 지역의 정체성을 보존하고 주민의 자긍심을 높이는 것을 핵심 목표로 삼았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11월 8일부터 11월 16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총 50명의 대학생이 참여하고 우록리 마을 주민 약 50명이 수혜자로 함께하였다. 한국어교육과를 비롯해 건축공학, 심리학, 경영학, 공학계열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참여하여 대규모 협업 봉사 형태로 운영되었다.

활동은 총 4일간 단계적으로 진행되었다.

1일차에는 벽화 작업의 기초 단계로 벽면 청소를 실시하여 먼지, 이물질, 이끼 등을 제거하고 작업 환경을 정비하였다.

2일차에는 벽면의 균열을 보완하는 제소 작업과 함께 벽화 전체의 색감을 통일하기 위한 바탕색 채색을 진행하였다.

3일차에는 김충선 장군의 역사적 의미를 반영한 밑그림을 스케치하고, 본격적인 채색 작업을 통해 예술적 표현을 완성해 나갔다.

4일차에는 완성된 벽화를 보호하기 위한 바니시 코팅 작업과 현장 정리를 실시하여, 장기간 유지 가능한 공공 예술 작품으로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젝트는 지역 환경 개선과 공동체 회복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충실히 달성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약 50m에 달하는 노후 벽면을 정비하고 벽화를 조성하였으며, 총 50명의 학생이 전 과정에 참여하는 대규모 봉사활동이 이루어졌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그동안 단조롭고 노후화되어 있던 마을 도로와 골목 공간이 밝고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변화하였고, 김충선 장군의 역사적 스토리를 담은 벽화는 주민들에게 지역에 대한 자긍심과 애착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주민들은 마을 분위기가 한층

따뜻해졌다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봉사단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사전 준비부터 마무리 코팅까지 전 과정을 직접 수행하며 책임감과 성취감을 경험하였고, 평평하지 않은 벽면이라는 어려운 작업 환경 속에서도 역할 분담과 협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협동심과 의사소통 능력을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활동은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함께하게 팀의 벽화 봉사활동은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지역의 역사와 이야기를 담아내는 의미 있는 사회공헌 경험이었다. 이른 준비 단계부터 체력적으로 힘든 작업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고 격려하며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힘을 실감할 수 있었다.

완성된 벽화가 지역 주민들과 오랜 시간 함께할 공공 예술 작품이라는 점은 참여자들에게 큰 보람으로 남았으며, 이번 활동을 통해 봉사의 진정한 의미와 사회 참여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대학생의 자발적 참여와 예술적 역량이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모범적인 지역밀착형 사회공헌 사례라 할 수 있다.



달성 법정 문화도시 청년 예술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 달성군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한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제작 및 시연

팀컴퍼니 팀



활동 내용

「달성 법정 문화도시 청년 예술 활동가 육성 프로그램」은 달성군이 추진 중인 법정 문화도시 정책과 연계하여, 지역 청년 예술가의 실질적인 창작·공연 경험을 확대하고 지역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기획된 공연예술 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팀컴퍼니 팀은 연극뮤지컬과를 중심으로 한 전공 역량을 바탕으로, 청년 예술가가 단순 참여자가 아닌 지역 문화콘텐츠의 기획자이자 실행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뮤지컬 갈라 콘서트 제작 및 시연을 수행하였다.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17일부터 12월 27일까지 약 2

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총 23명의 학생이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연출, 무대감독, 음향·조명 디자이너, 음악감독, 안무감독, 배우, 기획 및 소품 담당 등 공연 제작 전 분야에 걸쳐 역할을 분담하며 실제 공연 제작과 동일한 구조로 프로젝트를 운영하였다.

사전 단계에서는 달성군 내 야외 문화공간을 중심으로 공연 장소를 조사하고, 무대 규모, 관객 동선, 주변 소음 등 현장 여건을 분석하여 공연 운영 계획에 반영하였다. 공연 당일에는 기술 점검과 리허설을 통해 야외 공연 환경에 적합한 음향 밸런스를 조정하고, 안무 동선과 무대 전환을 점검함으로써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였다.



본 공연은 달성군 야외 문화공간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맘마미아〉, 〈킹키부츠〉, 〈올숙업〉 등 대중적 인지도가 높은 뮤지컬 넘버를 중심으로 구성되었다. 2회차 공연에서는 관객 반응을 반영하여 러닝타임을 확장하고 듀엣 메들리를 추가하는 등 유연한 공연 운영을 시도하였다. 공연 종료 후에는 내부 피드백과 지도교수 의견 수렴을 통해 공연 구성과 운영 전반에 대한 성찰을 진행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청년 예술가의 실무 역량 강화와 지역 문화 향유 기회 확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총 23명의 학생이 공연 기획·연출·기술·출연 전 과정에 참여하였으며, 달성군 야외 문화공간에서 뮤지컬 갈라 콘서트 2회차 공연을 성공적으로 시연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청년 예술가들이 야외 공연 환경에서 발생하는 기술적 변수와 현장 상황에 직접 대응하며 실무 경험을 축적하였고, 공연 러닝타임과 프로그램 구성의 중요성을 체감하는 계기를 마련하였

다. 특히 리허설 단계부터 시민 관객이 자연스럽게 유입되고, 공연 진행 중 관객 체류 시간이 증가하는 등 지역 주민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확인되었다.

또한 대학 전공 수업에서 축적한 이론과 기술을 지역 현장에 적용함으로써, 학생들은 공연 제작 전반에 대한 종합적 이해와 협업 역량을 강화하였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청년 예술가의 현장 대응 능력과 협력 구조를 실질적으로 성장시킨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으며, 대학-지역 연계 기반의 청년 문화 활동 모델로서의 가능성을 입증하였다.

활동 소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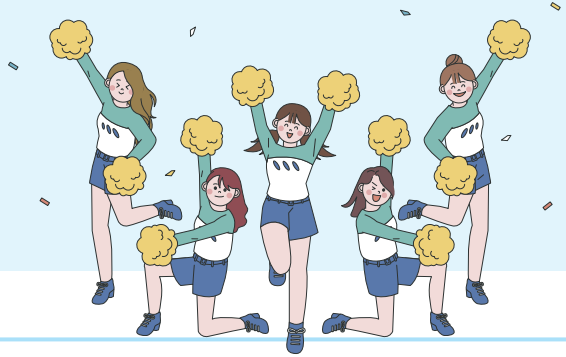
팀컴퍼니 팀의 뮤지컬 갈라 콘서트 프로젝트는 청년 예술가가 지역 문화의 수동적 소비자가 아닌 주체적인 생산자로 성장할 수 있음을 보여준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참여 학생들은 공연 제작 전 과정에 직접 참여하며 예술가로서의 책임감과 현장 감각을 함께 배우는 경험을 하였다.

본 활동을 통해 학생들은 예술이 지역 주민의 일상 공간과 자연스럽게 만날 때 문화 향유의 폭이 확장될 수 있음을 체감하였으며, 청년 예술 활동이 지역 문화도시 조성의 중요한 동력이 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향후 달성군 내 다양한 문화 공간으로 확장 가능한 청년 주도 공연 모델로서, 지속 가능한 지역 문화 활성화 사례라 할 수 있다.



지역 희망 에너지 충전 프로젝트: 달성군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캠페인

비사응원단 팀



○ 활동 내용 ○

「지역 희망 에너지 충전 프로젝트」는 달성군을 대표하는 지역 문화공간인 강정보 디아크를 중심으로, 청년 주도의 소규모 공연과 응원 퍼포먼스를 통해 지역 문화공간의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획된 문화기반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비사응원단 팀은 공연을 단순한 관람형 콘텐츠가 아닌, 참여와 소통이 이루어지는 문화 경험으로 확장하는 것을 목표로 활동을 전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10월 24일부터 12월 19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심리학·무용학·피아노·태권도·언론영상학 등 다양한 전공의 학생 6명이 참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기획, 퍼포먼스 구성, 음악 연주, 현장 진행, 안전 관리, 사진·영상 기록 등 역할을 분담하여 프로젝트 전 과정을 학생 주도로 운영하였다.

활동 초기에는 정기 회의를 통해 공연의 방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강정보 디아크 현장 답사를 통해 공간의 특성, 관람객 동선, 소음 및 안전 요소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응원 퍼포먼스와 음악 공연, 관객 참여 요소를 결합한 소규모 야외 공연 프로그램을 기획하였다.

1차와 2차 공연은 계획에 따라 실제 현장에서 진행되었으며, 오프닝 응원 퍼포먼스를 시작으로 팀별 공연과 관객 참여 메시지 전달 순으로 구성되었다. 공연 이후에는 팀 내부 피드백을 통해 긍정적인 요소를 유지·보완하며 3차 공연을 준비하였다. 비록 3차 공연은 외부 사정으로 인해 취소되었으나, 기획·연습·리허설·점검에 이르는 전 준비 과정은 충실히 수행되었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청년 주도의 문화기획 활동을 통해 지역 문화공간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정량적으로는 총 6명의 학생이 참여하여 2회의 현장 공연을 운영하였으며, 공연 기획·연습·리허설·현장 운영 전 과정이 계획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강정보 디아크라는 공간을 단순한 관광지나 통과 공간이 아닌, 시민이 머물며 소통할 수 있는 문화 공간으로 재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공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공간의 성격과 관람객의 흐름을 고려한 기획의 중요성을 체

감하였고, 청년 주도의 소규모 문화 활동이 지역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음을 경험하였다.

또한 팀 단위 협업을 통해 역할 분담, 일정 조율, 의견 조정 과정을 반복하며 공동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경험을 축적하였다. 3차 공연 취소라는 예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도 프로젝트를 성찰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치며, 현실적인 제약과 행정적 절차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성과를 거두었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활동은 결과 여부와 관계없이 교육적 목적에 부합하는 의미 있는 문화기획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비사응원단 팀의 활동은 공연이라는 결과보다, 그 결과를 만들어 가는 과정의 가치를 깊이 인식하게 한 경험이었다. 팀원들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공간의 특성, 팀원 각자의 역량, 관객과의 소통 방식을 고민하며 문화기획의 복합적인 요소를 체감하였다.

회의와 연습 과정에서 의견이 엇갈리기도 했지만,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보완하며 하나의 공연을 준비해 나가는

과정 속에서 '함께 만든다'는 경험의 의미를 실감할 수 있었다. 비록 최종 공연이 모두 성사되지는 않았으나, 그 준비 과정에서 얻은 기획·소통·조정 경험은 향후 지역사회 기반 문화 활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소중한 자산으로 남았다.

본 프로그램은 청년의 작은 시도가 지역 문화공간과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로서, 앞으로도 청년과 지역, 문화가 만나는 다양한 시도를 지속적으로 고민하게 만든 의미 있는 사회공헌 활동이었다.



빛나는 문화우체국 커뮤니티 가든 조성



마을정원 팀

○ 활동 내용 ○

「빛나는 문화우체국 커뮤니티 가든 조성」은 대구 달성군 화원읍에 위치한 옛 화원우체국을 리모델링해 조성된 문화예술 거점 공간 '빛나는 문화우체국'의 외부 유휴 공간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형 커뮤니티 가든을 조성하여 지역 문화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고자 기획된 지역밀착형 사회문제 해결 프로그램이다. 마을정원 팀은 생태조경학과 학생들로 구성되어, 전공 전문성을 바탕으로 정원 설계부터 시공, 관리 방향 설정까지 전 과정을 수행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2025년 9월 5일부터 2026년 1월 9일까지 약 4개월간 진행되었으며, 생태조경학과 학생 18명과 지도교수 1명, 외부 정원 전문가 1명이 참여하였다. 또한 달성군과 달성문화도시센터가 협력 기관으로 함께하여 민·학·관 협력 구조를 기반으로 사업이 추진되었다.

사전 단계에서는 커뮤니티 가든의 개념과 국내외 사례를 학습하고, 대상지 현황 조사 및 공간 이용 행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후 전문가 자문과 협의 과정을 거쳐 정원 조성의 방향성과 기본 설계안을 수립하였으며, 식재 계획과 동선 구성, 공간 활용 콘셉트를 구체화하였다. 설계 검토 과정은 총 수차례에 걸쳐 진행되었고, 학생들이 제안한 아이디어에 대해 전문가와 지도교수가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제공하였다.

현장 실행 단계는 2025년 12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간 진행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부지 정비, 토양 개량, 식재 배치 및 식재 작업을 수행하였으며, 시공 과정 전반에 걸쳐 전문가의 현장 지도가 병행되었다. 조성 이후에는 최종 점검과 실시시공도 정리를 통해 사업을 마무리하였다.



주요 성과

본 프로그램은 지역 문화공간의 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대학의 교육 역량을 지역사회 문제 해결에 연계한 사례로서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다. 정량적으로는 생태조경학과 학생 18명이 참여하여 커뮤니티 가든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문화공간 전면의 활용도가 낮았던 외부 공간을 주민 친화적인 녹색 공간으로 전환하였다.

정성적 성과 측면에서는 커뮤니티 가든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이 일상 속에서 머물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고, 문화공간의 상징성과 접근성이 함께 향상되었다. 단순한 환경 정비를 넘어, 주민·학생·전

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과정 자체가 공동체 의식 강화와 지역 유대 형성에 기여하였다.

참여 학생들은 설계 검토, 현장 시공, 결과 정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전공 이론을 실제 공간에 적용하는 실무 역량을 크게 향상시켰다. 특히 전문가 자문을 바탕으로 한 설계 수정과 현장 대응 과정은 학생들의 문제 해결 능력과 협업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적 성과로 이어졌다. 지도교수 평가에서도 본 프로그램은 교육과 실천이 효과적으로 연계된 우수 사례로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활동 소감문

마을정원 팀의 활동은 정원 조성이 단순한 경관 개선을 넘어, 사람과 공간, 공동체를 연결하는 매개가 될 수 있음을 체감하게 한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 설계 단계에서 고민했던 아이디어가 실제 공간으로 구현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하며, 생태조경학 전공 지식의 사회적 활용 가능성을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현장 작업 과정에서는 체력적·기술적 어려움도 있었지만, 팀원 간 협력과 전문가의 지도를 통해 하나의 결과물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번 활동을 통해 참여 학생들은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연계된 정원 및 공간 조성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동기를 얻게 되었으며, 지속 가능한 커뮤니티 가든 모델을 고민하는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



계명대학교와 함께하는 달서구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건강 **건강** **영양** 식생활 **복합** **숙숙** 체험 및 교육

물병 꾸미기 체험

수분섭취와 골고루 먹기를 위한
식품 스티커를 물병에 꾸며보아요!

손 씻기 교육 체험

체험형 교육 기기를 통해 손 씻기 후
잔여 세균을 직접 확인해보아요!

어린이 활동복 교육

색칠하기, 스티커 붙이기 활동을 통해
골고루 먹기를 실천해보아요!

저염·저당 교육 전시

건강한 식품을 위한 저염·저당
교육 자료를 확인해보아요!

달서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달서구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급식관리지원센터에서는
영양사가 없는 소규모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소에 센터의 전문영양사가 방문하여
급식소의 위생·안전·영양 관리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관입니다.

지원대상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복지
활동시설,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정신건강복지시설 등

지원서비스

급식 안전관리를 위한 순회방문지도

- 개인위생, 식재료관리
- 급식소 위생관리
- 염도관리

대상별 영양·위생 맞춤형 교육

- 대상별 식생활 교육
- 적정 배식량 교육, 식사
제공 방법 등 영양교육
- 손 씻기, 이 닦기 등
위생교육

연령·건강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식단

- 대상별 식단 및 레시피
제공
- 음식별 영양 성분
정보 제공

지역사회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사업

- 모듬습기 교육
- 요리 교육 활동
- 최소한 검사 등 지원

달서구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053-580-8971-9, 8990-2

급식관리지원센터

대구 미래를 위한 동행 'RISE' 청년친화형 지역사 문화조성 프로젝트

계명대학교는 대구시와 함께하는 RISE(리즈)를
지역산업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 및 지원하기
위해 대구광역시청과 함께 RISE사업자
지원 센터를 설립하고, 달서구와 함께 대구를 청년친화도시로 만들
기 위한 사업을 시작합니다.

계명대학교 청년친화형 지역사회 문화조성 활동

구분	구분	구분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운영 프로세스

LEARN	ACT	STAY	SHARE
지역사회 이해	지역사회 참여	지역사회 연계	지역사회 공유

추진 프로그램 소개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지역사회 연계 사업

대학인프라 지역 공유

대학자원공유모델 장착

창업거점
기술창업 및
성장 촉진

대학 특성화 공유
창업 생태계 조성

청년 연구자
직·주·락
빌리지 조성

유학생 전주기
원스톱 지원
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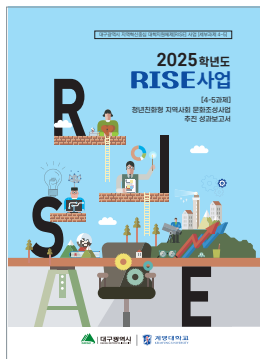
계명대학교 RISE사
사업기간 | 2025~2030년

함께 만드는 미래

대구광역시



2025년 대구광역시 페밀리페스타 참가



제작연월일 2026. 2. 24.

주 관 부 서 계명카리타스봉사센터

주 소 대구광역시 달서구 달구벌대로 1095
계명대학교 성서캠퍼스 바우어관 1201호

TEL. 053) 580-6694

E-메일 kcvc@kmu.ac.kr

본 책자는 대구광역시 RISE사업비로 제작되었음.